

3부

바보회의의 조직

인터뷰 3회차

2020년 3월 9일(월) 14:00~17:30

전태일 친구들

이승철

55일간 전태일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은 나의 인생에 운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보람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1.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

이수호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래도 우리 중구는 아직 확진자가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중구 출신 전태일이 (웃음) 세긴 센 모양입니다. 코로나가 함부로 못 오는 거 보니까. 농담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전태일의 친구들 노동구술기록사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은 평전의 3부에 해당하는 「바보회의 조직」 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작가님, 촬영감독님, 다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평전의 3부인데요. 평화시장 인근의 가혹한 노동 조건을 인식한 전태일이 노동운동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혼자 개인의 노력으로 풀빵을 사주고 해봐도 그것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인 바보회를 조직하는 내용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바보회는 후일에 삼동친목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노동조합설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단체로서 한국노동운동사에서도 무척 중요한 단체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전과 함께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바보회와 그 후신인 삼동친목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수호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자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현재 형부터.

임현재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임현재입니다.

최종인 네. 최종인입니다.

김영문 네. 반갑습니다. 김영문입니다.

이승철 네. 이승철입니다.

이수호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전의 3부는 전태일이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자 아버지 전상수 씨가 노동운동을 하면 예외 없이 일생을 그르치게 되니 노동운동을 만류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전태일 아버지 세대에게 노동운동은 입 밖에 내기가 어려운 금기였는데요.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할 때 노동운동단체라고 하면 다들 겁을 먹기 때문에 친목단체로 소개하고자 한 것도 이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한국전쟁을 경계로 분명해진 우리나라의 이념적 대립과 반공 정권을 표방하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당시 노동운동에 대해서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의 생각과 세간의 평을 듣고 싶는데요. 답변하실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노동운동이라는 말이 금기시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이나 그 당시 북한과의 관련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두려움이 실제로 있었는지.

또한 선생님께서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을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태일은 노동운동의 수단으로 파업이나 데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당시 삼선개헌반대 등으로 반정부 데모가 활발한 시점에서 주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운동 쪽에서 많이 했죠. 데모나 파업 같은 것에 대한 선생님

들의 생각, 사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또는 선생님들의 생활과 노동,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선 바보회를 보면 태일이가 주로 의견을 나눈 사람, 이름이?

임현재 개남이.

이수호 아! 평전에는 김개남과 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의논했다고 나와 있고. 다른 참가자들 이름은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여러 장면을 살펴보면 김개남이 전적으로 딱 일치하지 않지만 우리 김영문 선생님과 거의 동일인물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당시 태일리와 사업장이 가까워서 가장 많이 대화하고 바보회도 같이 만들어 활동했던 우리 김영문 선생님께서 관련된 상황을 먼저 말씀해 보시고, 이어서 다른 분들도 바보회나 삼동회에 대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영문 저는 아무래도 당시 암울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저도 평전, 일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전태일이는 평화시장에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64년도에 들어왔고, 저 같은 경우는 66년도, 6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당시는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왔지 무슨 노동운동 같은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전태일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같이 어울리게 됐습니다. 저는 평화시장 2층에 작업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친구도 평화시장에서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었는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그 친구를 만

났을 때 제 나이가 한 열일곱 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친구랑 만나면 그 친구가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해요. 42조에 보면 하루에 8시간, 그래서 일주일에 48시간. 이런 이야기를 가끔 간간이 들려줍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뜻밖의 이야기들이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뭔가를 개선하려면 우리가 근로자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기초 지식이 없었어요. 당시는 남자들이 한 공장에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수호 재단사죠?

김영문 재단사, 재단보조, 특종기계를 다루는 친구들, 또 시아계 사도 있고. 큰 공장에는 더 많이 있었지만 보통 웬만한 공장에는 2~3명 정도 있었어요.

평화시장 2층이 양쪽으로 쪽 공장이었기 때문에 가운데는 복도였죠. 화장실이 중간에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나마 그래도 남자들은 재단보조를 했어도 약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바깥에서도 볼 수 있었고.

저하고 태일리는 주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했죠. 그쪽에 주식회사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약간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바로 아래층에 있었고 그 친구도 옆에 있었죠. 가끔 만나 옥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친목회를 만들자고 해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일하는 공장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는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광장에 나가서 만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친목단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노동

문제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하기 힘들뿐더러, 그걸 다 이야기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죠.

가끔 태일리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니니까 눈에 띄었는지 선배들 몇이 아는 척을 해요. 나이를 한 네댓 살 더 먹은 선배들이 있거든요. 태일리가 이미 그 선배들한테 귀띔한 것 같아요. 언제 한번은 같이 가는데 “너네들 지금 뭐 하러 다니냐” 물어요. 또 “너네들 지금 무슨 엉뚱한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그런 걸 해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여기 평화시장이라는 곳 자체가 하나의 공장이 아니고 많은 공장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는 16명 이상이 돼야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네들 되지도 않는 거 자꾸 그러고 다니지 말아라, 그거는 바보 같은 짓거리다”고 해서 바보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태일리는 자기 혼자 다니면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나도 나하고 둘이 가는데 진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태일리가 딱 그러더라고. “그래, 우리는 바보, 바보니까 해보자. 바보라고 생각하고 해보자”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태일리가 생각해낸 거죠. 그렇게 친목회를 만들면서 바보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태일리는 작업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윗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보 같고 또 바보 같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바보스럽게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 사실 이것이 전태일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수호 그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했고, 그리고 주변의 선배들은

“야! 그 바보 같은 짓 왜 하나”고 했는데. 그리고 처음 시작을 같이한 다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김영문 사실 친구들은 실제 그렇게 꼭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친목모임으로만 생각했고. 그런데 가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호응은 되죠. 친구들은 “아, 그런 좋은 게 있었구나”라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태일리가 부연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 친구들이 공감을 더 많이 하고 좋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보회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수호 예. 하여간 평전에 나와 있는 바보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당시 상황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김영문 그다음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수호 네.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바보회, 처음에 1969년이죠. 그게?

김영문 68년도부터 시작하죠.

이수호 아, 68년도부터군요. 바보회 시작할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최종인 저는 바보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전태일을 소개해 준

사람이 신기호라고 원로재단사가 있어요. 신기호가 태일이 좋은 친구니까 사귀어라고. 그런데 전태일을 처음 봤을 때 걸음이 엄청나게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태삼이마냥 빨리 다녀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기동력도 있고 민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당시 전태일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죠.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정해서 바쁘게 움직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전태일은 친목회라는 조직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요. 저는 선배가 소개해 주니까 단순히 친구로 만나서 여자들하고 어울려 뚝섬야유회도 한번 같이 가고요. 저는 가정집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태일이 바바리코트를 입고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애는 좀 멋지구나’ 생각하고 있는 참에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같은 친구들을 좀 만날 수 없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괜찮다 싶어서 그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이승철이죠.

이승철 그렇게 된 건 아냐. (웃음) 나는 그래서 만난 건 아냐.

최종인 태일을 만나서 친구로 지내기는 했지만 바보회 내용은 잘 몰라요. 나는 그다음에 삼동친목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수호 하여튼 바보회 때는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태일이 는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되니까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김영문 그렇죠.

이수호 그러면서 친목회를 만들어 일단 모이자고 했고. 아까 바바리코트 멋있게 입고 왔다고 했는데 노동운동 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최종인 처음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영문 좀 늦게 만난 것 같아요.

최종인 좀 늦게. 전 태일을 제 나이 스무 살 때인가, 스물한 살 때인가 만났는데.

김영문 그러니까 69년도.

최종인 그 사람, 태일이가 당구도 쳐요. 놀이도 좋아하고, 참 활발한 친구로만 생각했죠.

이수호 안 그래도 자연스럽게 우리 승철 씨 이야기도 나왔는데. 삼동친목회 결성하고 총무?

이승철 서기 했죠, 서기.

이수호 『전태일평전』에 김영문은 바보회 활동 때 가명 김개남으로 나오고. 본명으로 나오는 사람이 총무 임현재, 서기 이승철.

이승철 그것도 잘못 썼어요. 원래 총무가 아니고 부회장이었거든.

임현재 아니야. 총무가 맞아.

이승철 그래?

이수호 평전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김영문 일기에 쓰여 있는 거 아냐? 일기나 노트에.

이수호 평전이나 일기를 보고 했던 노트를 보고 했던 다른 수기에서 했던 간에 평전에 그렇게 쓰여 있단 거예요. 사실을 가리자는 것 아니니까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승철 저는 평화시장에 들어와서도 전태일을 전혀 몰랐었고요.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오직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벌어서 시골에 보내주는 것이 나의 1차 목표였는데요. 우리가 임현재, 최종인, 나하고 셋에다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김영을까지 있어요.

이수호 아. 김영을

이승철 김영을이가 나이는 현재하고 동갑인데 종로6가에 집이 있었죠. 서울에서 중학교도 나오고, 평화시장에서 재단사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구심점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여하는 주점수라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친구들끼리 좀 많이 친했어요.

69년도 가을쯤에 최종인, 임현재 나 셋이서 “야, 우리 등산을 한번 다녀보자” 그랬어요. 영을이는 주로 작업복을 만드는 데 있었어요. 그때 한창 고등학생 교련복을 해주는 때였어요. 교련복이 군인들 옷같이 얼룩덜룩하

잖아요. 우리 셋이 남은 기레빠시로 옷을 위아래로 똑같이 해입고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다녔어요. 관악산도 가고 삼각산도 가고. 등산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970년, 자료에 9월 18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그때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공장 출근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종업원이 인간시장에서 1시에 사람을 만나서 다시 다른 직장으로 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11시경에 나랑 종업이랑 둘이 평화시장에 나왔어요. 그때 태일이가 쪼그마했는데 까만 바바리를 입고, 옆구리에는 책을 한 권 끼고. 모자는 빵모자를 썼던 것 같아. 아주 멋쟁이였어요. 종업이를 딱 만나니까 “오랜만이다”고 악수를 하면서 “너 언제 내려왔냐”고 묻자 “다시 시작하려고 내려왔다”는 안부를 주고받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소개했어요. 미리 사전에 소개한 게 아니고. 종업이가 “야, 둘이 알고 지내, 아주 재밌는 애야”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랑 악수를 하면서 태일이가 “동양방송 시민의 소리에 고발하러 가니까 같이 갈래” 해서 시간을 보니까 11시였거든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좋다고, 그렇게 셋이 종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서소문에 있는 동양방송을 갔어요. 그때 시내버스는 지하철처럼 의자가 세로로 길게 창문가로 붙여져 있었지.

우리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셋이 나란히 서 있었지.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해. 거기서 태일이가 근로기준법 책을 꺼내서 나한테 “42조, 근로시간. 일일 8시간을 근무하고 노사합의하에 두 시간 연장할 수 있다. 45조, 주휴일. 근로자는 주1일. 하루를 휴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 71조였던 것 같은데 “일 년에 한 번 건강진단을 사용주는 해줘야 한다”는 이 세 조항을 알려주며 이렇게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 법이 있으면 법이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부시장 재단사로 일할 때, 1968년경, 전태일재단.

그리고 동양방송에 도착했어. 4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셋이 계단으로 올라갔어. 방송국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주관적인 사정이 그럴지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주관적이니 객관적이니 아주 유식한 말로 얘기하는데 그때 나에게는 어려

운 용어였어. 그리고 자기들은 이 내용을 방영할 수가 없대.

아래로 내려와서는 태일이가 서울시청으로 가자고 그래. 거기서 가깝죠. 그때는 서울시청에 근로감독관이 한 명씩 상주를 했나 봐요. 도착하니 12시가 조금 넘었더라고. 12시 10분쯤 됐나 봐. 밥 먹으러 갔는지 근로감독관이 없어. 종인이는 1시에 약속이 있고, 그래서 태일이한테 “그러면 네가 기다렸다가 만나고 와라”고 해놓고 우리는 다시 돌아왔죠.

시장에서 일을 보고 2시쯤 넘었을 때예요. 그때는 일을 시작 안 할 때였어요. 나도 직장이 있었지만 시작을 안 했고. 평화시장에 차들이 들어올까 봐 쇠로 막아 놓았는데 딱 걸터앉기 좋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어슬렁어슬렁 다들 모여들었어요. 신진철이라는 친구도 오고.

거기서 내가 어찌면 더욱더 적극적이었을 수 있어. ‘와, 일요일마다 놀면 등산을 갈 수 있네’ 오직 그 생각. 그래서 내가 “야, 전태일이라는 애를 만나서 오늘 동양방송국도 가보고 했는데 어이구 일요일마다 쉴 수 있다고 하네. 일도 하루에 8시간 하고, 해도 10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전태일이란 애를 만나보자고.

그리고 한 서너 시 가까이 돼서 태일이가 온 것 같아요. 흥분해서 왔더라고. “어떻게 됐어?” 물었더니, 근로감독관을 만났는데 안 된다고 해서 노동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동청이 을지로2가, 지금 청소년회관인가 그럴 거예요. 노동청에 가서 우연히 기자들을 만났대. 기자들이 태일을 데리고 6층 기자실로 가서 태일에게 설명을 들었대. 태일이가, 나 여기에 여차여차해서 고발을 하러 왔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단체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진정을 내라. 그런데 진정을 내기 전에 자기들에게 자료를 보여주면 자기들이 기사를 써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근로기준국장이 임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친목회 하나 만들자”고 해서 만든 모임이 삼동친목

회. 그리고 나는 삼동친목회가 바보회의 연장이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듣고. 은하수다방에 가서 회의를 할 때도 내가 서기를 맡고. 나는 부회장이 라고 생각했는데 총무였나 본데. 내가 회의할 때마다 다 적었어요. 그날은 임원선출만 하고 다음 날인가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하면 작가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책은 사실과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수호 특히 평전이 그래요.

이승철 그때 나는 태일이가 노동문제를 잘 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근로기준법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근로시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여덟 시간으로 하는데 연장해도 오후 8시를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목 때는 10시까지도 한다, 다만 수당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일요일을 우리는 주휴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는 그거를, 주일을 뭐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수호 주일이죠. 주일.

이승철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 노동자들은 주일에 참여할 수 없나. 그래서 그 주일에 꼭 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날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하나 얻자. 한 명이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고발하고, 그 근무자 월급은 우리 친목회 회원들이 10퍼센트씩 돈을 걷어 월급을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십일조 같은. 그렇

게 해서 친목회를 만들게 됐고.

이수호 그게 삼동친목회.

이승철 네. 그래서 삼동친목회가 평화시장, 동화시장 그리고 통일상가. 이 세 곳에 있는 재단사들 친목회. 그래서 삼동재단사 친목회.

이수호 참 재밌는 게 바보회라는 그 단체, 조직의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사상 같은 게 담겨 있어요. ‘아, 우린 바보다, 그래 바보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왔다, 바보니까 한번 머리 치 박고 할 수 있잖아.’ 바보에 대한 철학. 뒤에 바보사상이 또 나옵니다. 사실은 친목회 형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친목회라는 이름을 안 붙였어요. 그냥 바보회라고 했고. 그 뒤에 삼동친목회는.

이승철 재단사 친목회.

이수호 거의 하루 사이에 처음으로 얘기한 자리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네요. 무엇이 필요하다 하니까 그래 만들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뒤에 그걸 구체화시켜서 단체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평화시장, 동화상가.

김영문 네. 세 개 상가를 묶어서 하게 됐죠.

이수호 통일상가까지.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방식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의 이름이거든요. 노동조합 조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친목회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 만나서 중요한 일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이어서 계속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현재 선생님은 그때 처한 상황을 보면 노동운동을 할 형편도 아니었고. 다만 근로기준법이란 걸 보고 ‘아, 나도 일요일은 쉴 수 있다’ 또는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한 놀라움과, ‘그건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가 해야지’ 이런 인식 정도가 단결하는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는 어땠었죠?

임현재 그렇죠. 제가 전태일을 만나게 된 때는 삼화사에서 해고되고 나서 1~2년쯤 쉬었는데 취직을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세진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신기호가 전태일의 선배고 또 나의 직속상관이었고,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태일이가 한번 왔을 때 “야, 니들 인사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데, 그 뒤에 우리 모임이 있을 때 한번 만나자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신진철도 만나고 종인이나 승철이는 이미 친구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됐죠.

그동안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으니까 그때 아마 동양방송에 갔다 온 뒤였죠. 바보회를 정식으로 새로 재결집하는 회의 첫날이었죠. 그래서 그날 회의의 명칭도 정하고 임원을 어떻게 둘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친목회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일요일 쉬는 거,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거기에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거나 또는 그만두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문제, 이런 문제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도 그때 상당히 발언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특히 어린 시다들이 자기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러 왔다가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사장 눈치만 보며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던 모습들을 우리는 그때 많이 봤었거든요. 이런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뭉치면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예감에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었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됐던 거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근로기준법이 있고 그 법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노동청이라는 데가 있다, 이런 정도로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동양방송에 갔다 오고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뒤에 근로기준국장이랑 근로감독관이랑 왔어요. 그래서 그들과 평화시장에서 회합을 했었어요. 나는 회합에 참석을 안 했지만 나중에 회합 결과를 들으니까 아마도 평화시장 업주들이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래도 니들이 노조는 만들 수 없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태일의 대답이 “응, 나는 노조 만들 생각 없다, 노조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지금 노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 문제를 시정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나는 노조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없을 때인데 전태일은 노조를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웠고요.

근래에 평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당시에 이미 전태일은 노동운동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재취업을 거부당했고. 이미 제한적이거나 여러 가지 탄압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아마 어디서 얘기를 들었던지 배웠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나는 그때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다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전매청 앞에 전국전매노동조합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저기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조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노조를 결성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 알았고. 알면 알수록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배우게 되니 지식으로 쌓이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수호 종인 씨는 노동조합, 언제 최초로?

최종인 노동조합은 전혀 몰랐어요. 휴일에 쉬게 하자, 환경이 너무 나쁘니까 환경을 개선시키자, 시간 단축하자, 이런 활동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삼동친목회 활동 자체가 짧은 기간이에요. 김영문 씨는 바보회 때부터 몇 년 동안 쪽 태일리와 관계를 이어왔고, 저는 태일리를 그전부터 알았어요. 저희 셋은 같이 놀러도 다녔어요. 친목회를 만들고 짧은 시간 활동할 때에 참여를 한 거야. 삼동친목회가 노동청에도 가고 기사실에도 가고 서울시청에도 가고 동양방송에도 가고. 갑자기 짧은 시간에 온갖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놀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태일리하고 행동을 같이했죠.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서 노동청이든 기사실이든 어디든 따라다녔죠. 그런데 활동은 하더라도 먹고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애들 바지 떼어다가 모래내시장에서 노점상을 했어요. 당시 임현재도 놀고 있었어요. 혼자 힘드니까 임현재 불러서 같이 노점상을 했죠, 현재야 기억나지? 보따리 메고 노점상 하면서 물건 팔아 용돈으로 쓰고, 활동비도 대고. 활동비, 우리 생활비였지. 노점상 하면서 생활비를 대고 했던 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그전에 태일리하고 적극적인 활동은 그 정도였고.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태일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했죠. ‘휴일을 놀게 하면 너무 좋겠다, 어린애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이런 뜻에 공감해서 같이한 거지 노조를 구성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죠.

이승철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조에 관한 당시 상황을 임현재가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우리가 친목회를 만들고 그 이튿날 설문조사 통계를 내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태일리가 가져온 설문지가 100장이 훨씬 넘었어요. 36매인가 조사된

게 있었는데 그건 바보회 때 했던 거고. 그거 말고 우리 친구들이 10장씩은 다 받아야 된다 해서 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쓰면 일요일날 논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애네들이 “오빠, 이거 다 쓰면 돼요?” 하면서 써주고. 그래서 126장인가 100장 넘게 받았지.

그때 삼동친목회가 열몇 명인 줄 알았더니 명단이 나와서 보니 아홉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임현재 아니, 그러니까 명단에 회원 중에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도 안 들어갔더라고.

이승철 그러니까 나오는 날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 이름 안 쓴 사람 등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홉 명이에요. 많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실태조사 설문지를 가져다주니까 10월 6일날 대서특필이 된 거죠. 언론보도는 경향신문에 난 것만 맨날 이야기하는데 경향은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었고, 동아일보는 2면에 4단으로 ‘평화시장 2만 7천여 명 직업병에 시달린다’라고 기사를 냈어요.

이수호 동아일보에?

이승철 네, 동아일보.

김영문 ‘16시간 노동한다’

이승철 ‘직업병에 시달린다’고 크게 신문에 나왔어. 그때 탱크시계라고 있었어. 최종인이 3천 원 월급 받는데 3천6백 원짜리 옷을 사, 최종인이는 원래 멋쟁이였거든. 그 탱크시계가 당시 대유행이었어. 웬만한

사람 못 찾아.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 났다고 최종인이 탱크시계를 신문사에 맡기고 신문을 300부 정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재단지가 있었는데 큰 것, 네모진 것, 누르스름한 것들 다 가져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걸쳐 입고 평화시장 통로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신문을 팔았죠.

그리고 이틀째인가, 그 동안에 태일이가 진정을 냈는데 그쪽에 연락처가 남아 있었나 봐. 그때 나하고 영문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로기준국장이 한번 보잔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 영문이와 승철이가 태일이하고 가라”고 그래서 태일이하고 셋이 평화시장에 간 거예요. 이동표 사장이었던 것 같아.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지. 임정삼 국장도 같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대충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내려오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생생해. 평화시장 3층에서 내려오다가 임정삼 국장이 딱하니 서서 “지금 저 사용자들은 여러분들을 계속 깡패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빨리 개선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틀쯤 지났을까. 거기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선배들이 있어. 양태중, 한중옥, 그리고 또 한 명 해서 이렇게 세 명. 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자 한다고 해서 만났어.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 나는 생전 못 들었던 이야기지.

김영문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승철 그래서 내가 당돌하게 “만들면 직책을 뗄 주냐”라고 했더니 하, 태일이에게 시장 하나를 담당하게끔 해준다고 그래.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분회장이었어. 자기가 지부장하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우리가 지금 다 해냈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상가 대표를 한다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더 얘기가 안 되고 결렬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까지도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결렬이 됐고.

그때가 10월 10일, 일주일쯤 돼서 “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우리 셋이 다시 한 번 평화시장 사무실로 갔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근로시간이나 휴일은 바꿀 수 없고,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바꾸고, 창문에 환풍기 하나 다는 것을 금년까지 하겠다고. 우리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 이거 안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지. 일단 얘기 듣고 내려와서 회의를 하는데 태일이가 데모를 하자고 그래. 나 같은 경우는 데모라는 게 생소한데, 그래도 6·3한일협정 반대 데모하는 거를 본 기억이 있고 뉴스를 들어 알잖아. 그래서 ‘아, 그런 데모인 모양이다’고 짐작했지.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도로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항의를 하는 거라고, 국정감사날 거기서 하자고 했죠. 한테 우리는 신문을 안 보니 국정감사를 언제 하는지 몰랐어.

하루는 태일이가 그러는 거야. 노동청에서 연락이 와서 간다고, 갔다가 저녁에 왔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렵다고 한다’ 했었는데 그러면 국정감사 때 가서 해야지 그랬더니 그날 바로 국정감사를 했더라고. 그날 우리가 행동을 못 하게 노동청이 태일이에게 완전히 사기를 친 거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났지. 평전에는 24일로 쓰여 있던데, 내 기억으로는 23일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그날 시장 앞에서 항의 데모를 하자고.

2. 근로기준법

이수호 그 이야기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바보회와 삼동친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태일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이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같이하자고 해서 하거나 또는 일요일은 쉬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해서 했고,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는 것이 사실은 노동운동의 처음 시작이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죠.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웃음) 노동운동의 역사라는 것은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죠. ‘일요일은 쉬게 하라’ 이 한마디가 노동시간 단축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했든 안 했든 이미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거죠.

김영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수호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하루에 8시간 근무, 일요일은 매주 쉰다,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서 다들 놀랐잖아요. 평전을 보면 전태일도 동굴 속에서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 놀랐다 이렇게 나오죠.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어 어렵게 그 책을 구했고, 특히 엄마한테 빛을 내서 그 당시에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사고.

김영문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수호 몸에 끼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계속했죠. 이야기가 조금 나왔지만 이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나 또는 지금 바보회, 삼동친목회 얘기를 했었는데. 바보회는 1968년에 만들었고, 바보회 활동을 하다가 전태일은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삼각산에 갔다가 다시 70년 9월에 활동을 하면서 두세 달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최종인 저는 태일이를 그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수호 근로기준법과 관련되어 친목회가 변화하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구체적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바보회나 특히 삼동친목회가 처음 시작하는 날은 어떤 분위기였고, 어떻게 총무가 되고 또 서기가 되었는지 등등.

최종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호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구성원들 사이에 얘기를 하다가 생각이 달랐던 일이라거나 또는 바보회나 삼동친목회 활동 중에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등 기억나는 대로. 아까 이야기가 쪽 나왔습니다만 구성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인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최종인 삼동친목회가 열댓 명 있습니다. 열댓 명 가운데 중추적으로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태일이가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근로기준법에 ‘휴일을 쉬게 한다, 노동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죠. 솔깃해하면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이승철이예요.

이수호 그렸어요?

최종인 우리는 노는 것에만 솔깃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세상 깜짝 놀라게 생각한 것이 이승철이라 이거요. 거기에 임현재까지. 이승철이가 서기를 맡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삼동친목회를 하면서 태일이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친목회 조직을 잘 끌고 가야 되겠다고. 우리는 태일이가 얘기한 것은 무조건 따랐으니까. 저는 그때 9월 조금 지나서 해고를 당하고 경향신문사, 노동청, 기자실, 태일이가 하는 일에 다 따라다니면서 행동을 같이했죠. 이 친구들은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승철이가 개성이 좀 특이합니다. 이승철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꼭 집어서 딱 지적을 해요. 잘 찾아내요. 우린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고 있잖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었던 기억. 임현재는 묵직하게 주장을 내세우는 타입. 이 사람들이 태일이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됐지 않았을까. 나중에 태일이가 가고 난 뒤에 우리 세 사람은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됐죠.

이수호 하여간 바보회.

김영문 네. 바보회는 더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수호 바보회가 구체적으로 결성될 때 평전에도 상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평전에 없는 내용이나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김영문 아까 삼동회는 재단사 친목회라고 했잖아요. 바보회는 그

런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을 모집한 겁니다. 재단보조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시아계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재단사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당시에 나이 두세 살 차이는 친구같이 지냈어요.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인사하다 보면 나이를 모른 채 친구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나이를 더 먹기도 하고 덜 먹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동. 아마 토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창동에 예닐곱 명 정도가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평전을 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69년도로 되어 있어요. 그전까지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게 태일이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밤에 창동을 갔는데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자고 있었는지 어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어머니를 봤을 때 참, 정말 어머니 같은. 그냥 아주 순진한 어머니, 그렇게 보였어요. 창동 거기가 지금 쌍문동이에요. 사실 늦은 밤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죠. 태일이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간단한 먹을거리만 준비해 주면 좋겠다고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라고 쓰여 있는데, 먹으면서 굉장히 오래도록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수호 태일이가 데리고 간 거 아닌가요?

김영문 그렇죠. 그러니까 더 다잡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는데 4시나 5시쯤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교회에 다니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생각까지 납니다. 저는 그날 밤에 태일이가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역시 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창동 집을 알았고. 그래서 11월 13일도 제가 집에 가는 내용이 나오죠.

정말 태일이는 생각이 많은 친구였어요. 하여튼 만나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간단한 것들만.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친구들도 호응을 했지만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직장에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거나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그랬을 때는 간혹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각자 뿔뿔이 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바보회도 잘 안되고. 바보회 활동 때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수호 예. 한 번 했죠.

김영문 설문조사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아는 친구들한테 가서 점심시간에 어떻게든 받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곳에서 일했을 텐데 바로 그쪽 부근에 아는 남자 친구들, 선배들에게 받고. 태일도 자기 아는 데 가서 받았는데 결국은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하여튼 그걸 가지고 근로감독관실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설문지 양도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아마 좌절에 빠지는 시간도 오죠. 또 바보회 친구들도 꼭 그런 활동이나 뜻을 생각하고 만난 친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태일이의 이야기에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철 씨가 얘기했지만 삼동회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9월인가 10월인가 하여간 처음 데모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선동을 했다면 각 공장에 아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점심시간 1시 20분 정도에 구경할 게 있다, 볼 게 있으니 나와라”고 했죠.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오지 않거나 관리자들이 안 내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을 유도하는 식으로 그날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데모를 시작하는데 경비들이 이미 골목에 서 있었어요. 그때 바로 경비실에서 형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부릅니다. 승철이가 이야기했듯이 태

일이하고 셋이 경비실로 올라가서 ‘일요일을 쉬게 해달라. 그리고 다락방 철거해 달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수호 교섭 아닌 교섭을 하셨구나.

김영문 결정적인 건 ‘환경 자체를 조금 개선해 달라. 그리고 노동 시간 단축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데모할 때 돈이 없으니까 종이로 플래카드를 만들어 직접 썼죠. 바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라는 문구.

이수호 썼다 이거죠?

김영문 예. ‘휴일을 놀게 해달라’ 이런 건 시작도 못 하고 올라가게 된 거죠.

이수호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바보회와 삼동회 처음 결성할 때 분위기.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태일이가 천군만마를 얻은 초대 서기 승철 씨? 느낌 한번. (웃음)

이승철 제가 뭐 얼마나 했다고. 그런데 『전태일평전』을 읽으면서 무얼 느꼈냐면 바보회하고 삼동친목회 활동 내용이 막 섞여 있어요.

하여튼 은하수다방이 동화상가 2층에 있었죠. 임원선거를 은하수다방에서 했거든요. 우리가 임원선거를 하면서 작업장 환경문제도 있었지만, 무엇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로 시다들 임금이 적으니까 그것부터 대폭 올려야 된다, 100퍼센트로. 6천 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을 얻어 한

사람이 상근을 하며 위반자들 고발하는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10퍼센트씩 월급을 떼서 그 사람 월급, 활동비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수호 해고당한 사람에게?

이승철 네.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비유하자면 바보회 같이한 친구들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예요.

그에 비해 우리 쪽은 약간 거친 사람일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정의감이 더 있다 그런 뜻. 예를 들어 전두환이가 물에 떠내려가. 놔두면 죽을 것 같은데 착한 사람은 건지죠. 사람이 죽으니까. 약간 정의롭고 옳은 사람은 놔두지, 죽어버리라고. 나는 그 착함과 옳음, 그런 차이를 구분하거든. 우리가 적극적이었지.

다방에서 10시 넘어가고 11시 되니 문 닫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야, 현재 너 이 새끼 말해 봐, 진철이 너 새끼 발언해 봐”라고 반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태일이가 계속 존댓말을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도 동화돼서 존댓말을 썼지. 그리고 우리가 엄청 진지하니까 12시가 다 될 때까지도 그 다방에서 나가란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뒤로는 은하수다방에 태일이의 말을 전하면 다방에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의논 내용 중에 사용주에 대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이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아, 이 사람들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말이 좀 그랬는데, 개는 항상 주일이라고 했지 주휴제라는 말을 안 했어요. 동심, “왜 애들은 주일을 가질 수 없나” 그랬거든. 우리에게 는 일요일이고 주휴제지만.

그런데 내가 그때 좀 이상했는가 봐. 태일이가 교회 이야기를 너무 하잖아, 주일 선생이라고도 했지. 우리 모임 끝나면 포장마차에서 막걸리 한잔

먹잖아요. 그럼 내가 좀 짓궂게 했어. “태일이 막걸리 먹어!” 하면 안 먹는 대요, 그럼 내가 그랬어. “너 이거 막걸리 안 먹으면 앞으로 이제 모임 안 해”라고, 그러니까 먹더라고. 또 일부러 담배를 피워서 “야, 담배 피워!” 그러면 안 피운대. 그래서 “너 담배 안 피우면 우리 모임 안 해” 하니 담배를 피우더라고.

나중에 어머니 이야기가, 그 무렵 주머니에 몇 번 피우고 끈 담배꽂초가 많이 있었다고 해. 우리들이 주면 피우는 척하다가 끄고 집어넣었나 봐. 그렇게 내가 짓궂게 했는데. 나는 그때 전태일이 완전히 종교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고 보였어. 그리고 아까 임현재 씨는 노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나는 전혀 못 들었어요.

이수호 구체적으로는 못 들었던 거죠.

이승철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책도 거의 한문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도 없어. 개가 말하는 근로시간하고 휴일에 관한 내용이 제일 포인트였죠.

최종인 승철이를 비롯해서 삼동친목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개성이 확실한 사람들이예요. 신진철이도 울끈불끈하고. 저 같은 경우 조금 원만하게 따라다니는 사람.

이수호 스스로 원만한. (웃음)

이승철 아니. 원만해!

김영문 조화를 만드는 사람, 조화를.

최종인 원만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태일이가 일 있다면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일이가 삼동친목회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하여 삼동친목회 회원들에게 실태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환경실태조사예요. 저는 설문지를 공장에 가져가서 미싱사들과 시다들한테 써주라고 했어요. 많이 받았어요. 공장마다 설문지를 들고 다녔어요. 그걸 취합하고 정리해서 노동청 기자실에 같이 찾아간 거죠.

당시 노동청 출입기자실에 기자들이 예닐곱 명 있었어요. 그때 기자들하고 이승택 노동청장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요. 기자들이 “이거 건수 좋다. 느그들 딱 기다려라”며 이거야라고 하대요. 그리고 10월에 ‘16시간 노동’이란 내용이 딱하니 신문에.

이승철 10월 6일.

최종인 그때부터 닭장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중 다락방에 닭장을 메고 16시간 일하고 있다. 이 지역의 인원이 2만, 3만 된다, 서울 중심지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되냐 개선해야 된다’고 신문에 나니까 태일이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승철 다 되는 줄 알았죠, 우리는.

최종인 신문에 나니까 우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이제 노동시간도 단축되고, 일요일도 놀 수 있고, 이럴 줄 알았죠. 돈이 없으니까 경향신문사에 내 시계를 잡히고 그 신문은 한 300부 얻어서 정신없이 팔러 돌아다닌 거죠.

김영문 팔고 나눠 주고.

최종인 나눠 주고 팔고, 백 원도 받고 그냥 공짜로도 주고. 돈 더 준 사람은 다 받고, 나중에 모금운동해서 시계는 찾았어요. 그때 태일이가 힘을 받았죠. 그래서 이 멤버들하고 항상 저녁에 모임을 했죠.

아까 근로기준국장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니들 맘대로 해라’ 했다잖아요. 신문에 나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안 되겠다 해서 행동으로 옮기자, 데모를 하자고. 평화시장 중앙에 조그마한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을 인간시장이라고 부르죠. 재단사, 공장장, 사용자들이 인력을 소개하고 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죠. 무지하게 모여요. 몇천 명 모이니까 여기를 이용하자고, 그래서 1시 20분에 행동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수호 네. 삼동회 총무로 선임되면서 리더 역할도 상당히 하시고 그랬는데.

임현재 총무라는 직책이 제가 평생 처음 맡아본 감투였는데, (웃음) 그때 우리들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어요. 젊은 놈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겠다고 결사체를 만들었다는 것에 굉장한, 뭔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우리가 친목회라고 해서 야유회를 가거나 친구들하고 영화를 보러 다닌다거나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논했다는 거죠. 어린 시다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 우리가 뭉치면 힘이 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매우 의미 있는 결사체를 만들었고 또 직책도 맡았고 동시에 책임감과 성취감 등 뭐랄까 굉장히 뿌듯했어요.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죠. 전태일이 가고 나서 나중에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었는데 썩은 책상 몇 개와 나무난로 하나 있었죠. 아무도 월급 줄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전태일이 우리 때문에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책임감으로 우리가 어머니도 모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때 다 논의했었는데.

그런 각오로 집에 가서 “내가 이제부터 월급을 못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요한 일은 우리 부모님도 소문을 들어서 알았죠.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같이 데모하다가 죽었고 우리 아들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하는 것도 아셨고. 그래도 걱정은 하시지만 이건 통보지,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수호 예. 그러니까 바보회, 삼동회를 거치면서 사실 당사자들은 이게 무슨 조직인지 잘 모르거나 의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노동운동적 관점에서 보면 바보회가 노동운동의 아주 초기적인 형태였고 삼동회는 상당히 강한.

김영문 좀 성숙했죠.

최종인 삼동회가 강하다기보다 사람들 개성들이 강했던 거예요.

이수호 그래서 조직체계도 갖추고 구체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고. 결국 태일이 분신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임현재 예수님이 제자를 임명하는 것같이 우리는 전태일이한테.
(웃음)

이승철 제 에피소드 하나 할까요?

이수호 예. 그것만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

이승철 예. 신문에 보도가 났을 때 같은 신문에 임정삼 국장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하겠다’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개선이 없자 10월 23일날 데모를 하려다 못 하고 회의할 때 신진철이가 “야,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우리들 두 명씩 몽둥이 들고 평화시장 입구 지키면서 애들 전부 출근 못 하게 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수호 지금 말로는 파업이죠. (웃음)

이승철 내가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누가 신진철이를 소개했어. 그때 신진철이 우산을 들고 있었어. 신진철이 나를 딱 보고 우산을 획 던지면서 “저 목포에 신진철입니다” 이러더라고. (웃음) 그렇게 개도 와일드한 애였어. 그 이후에 노동조합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개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수호 예. 그랬군요. 그럼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휴식)

3. 일상 속의 전태일

이수호 예. 바보회, 삼동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씀을 하실수록 기억도 살아나고 하네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한편으로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당시 행동들에서 그때는 못 느끼고 의식도 안 했지만 ‘아, 그게 지금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느낌도 받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보회, 삼동회와 함께 활동을 쫓 하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의식 없이 이른바 노동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용자들 만나서 요구도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변해가는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했는데. 좀 더 재밌는, 재밌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전태일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나는 일들. 특히 전태일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참 어떻게 저런 친구가 다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또 다른 측면도 상당히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보회와 삼동친목회에 가입하거나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뭔가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무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하자고 하니 했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때 선생님들은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로 회의 장소로 이용했던 다방이나 중국집, 음식점 등.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버님, 전태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보회는 전태일 집까지 가서 밤을 새우며 토론도 했는데 이와 같은 에피소드라든지. 그 당시 선생님들은 활동을 하면서 어땠는지요. 그 활동이 어떤 영향을 주기도 했는지요.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취미라든지, 그 당시 불렀던 좋아하는 노래 등. 또 바보회, 삼동친목회 활동을 통해서 자기나 주변의 변화 같은 걸 느꼈거나 눈에 띄게 뭐가 달라졌다거나. 이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소회를 가볍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임현재 선생님께서 먼저.

임현재 저 같은 경우 남자로 태어났는데 삼동회에서 그런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에 의미나 가치가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어 삼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그리고 평화시장에서 젊은 재단사 그룹이 뭉치면 ‘무엇이라도 될 거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 또 고만고만한 또래들이 모여 결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던 건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전태일이 우리 곁을 떠남으로 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걸로 바뀐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목숨 걸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고.

가장 먼저 겪었던 상황이 가난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사무실을 나와서도 먹을 게 없었고 그래도 교회나 단체 같은 곳에서 우리한테 위문하러 방문을 해주는 분들도 계셨고. 어머니께서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야, 여기 올 때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가져올 거 없고 그냥 라면만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라면은 거의 안 떨어지고 먹었죠. 커다란 들통에다 여러 개를 넣고 끓이니까 나중에는 전부 퍼져서 죽처럼 됐지만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으면서 일단 일할 수 있었다고 봐야죠. 그렇다 해도 나중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월급을 타다 줘야 하는데 그건 당시 상황에도 그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컸죠.

그렇지만 사무실을 나오면 친구들과하고 다 뭉쳐 다녔고, 워낙 할 일도 많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부 잊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조합원들을 의식화시켜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을 의식시킬 수 없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다른 선진 노동단체들의 교육도 받고. 지오씨(JOC)나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님들과의 만남도 갖고. 나중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적으로 투쟁의지를 갖게 했던 가장 큰 가르침은 역시

크리스찬아카데미 동지들하고 같이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지식도 많이 얻었고 힘차게 운동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생겼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예. 그러니까 전태일 동지의 분신행거 그 자체가 주는 의미와 감동.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영향도 있었기도 한데, 사실 삼동회 활동이 9월에 시작을 해서 11월 13일까지이니깐 한, 두 달이에요.

이승철 55일간이에요. 딱.

이수호 예. 55일간.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생겼었죠.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최종인 삼동친목회 시작부터 13일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해고를 당해서 적극적으로 그 활동만 했어요. 이승철이는 먹고살아야 되고 또 용돈도 마련해야 되니까 직장에 다녔죠.

내가 옛날에 의류장사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 점원 생활을 해서 어떤 옷이 잘 팔리겠는지를 척 보면 알아요. 모래내 가면 야시장이 있습니다. 장날에 시장 물건을 보따리로 떼어다가 그 공간에서 노점상을 했죠. 보따리를 메고 다녀야 했는데 혼자 힘드니 임현재하고 같이했죠. 임현재 집이 연희동이어서 거기에 맡기고 왔다 갔다 했고, 태일이라고 모임 할 때는 여기 평화시장으로 왔어요.

저녁에는 시장에서 모임을 했죠.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들이 어린 내가 느끼기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이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신문에 났다는 것과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였죠. 우리가 태일이라고 설문지를 만들고 방송국이나 신문기자들 쫓아다니

며 활동하는데 태일이가 왕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태일이 저놈 대단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로기준법이 어떻고 난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일하는 공간이 다락방 아닙니까? 환경이 너무 안 좋죠. 완전히 닭장이라 소문났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 휴일엔 놀게 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는 벅찬 느낌이었죠.

우리 삼동친목회 회원뿐만 아니라 태일이가 정의감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뒤로 태일이의 정의를 내 생활신조로 삼았어요. 태일이가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어디에서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누구든지 정의를 이길 순 없다. 절대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자 하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태일이가 간 뒤에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측근에서, 내 앞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마지막까지 봤으니까. 내 잠바로 덮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저는 눈물이 나와서 얘기를 못 해요. (눈물)

이수호 예. 그건 다시 나중에.

최종인 머리가 부글부글 나일론 천 타듯이 타고… 그 사람을 뒷바라지해야겠다. 그 사람의 꿈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를 따라 정의롭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과 태도로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수호 임현재 선생님은 삼동회 활동하면서 만난 거예요?

임현재 아니. 그전에.

이수호 그전에도?

최종인 그전에 아는 친구. 여긴 삼동회 하면서.

이수호 여기 우리 김영문 선생님은.

최종인 바보회 원 멤버예요.

이수호 삼동회 하면서 만나게 됐고. 아까 쪽 이야기 나오는데 전 태일도 참 멋쟁이이고.

최종인 예! 멋쟁이죠.

이수호 우리 최종인 선생님도 그때 당시 상당히 멋쟁이라고.

최종인 멋쟁이는 아니고요. (웃음) 제가 월급을 받으면 바로 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집에 도와주지 않고요. 서울에 와서 혼자 살다 보니 돈이 생기면 쓰게 됐죠. 특히 내 와이프가 일류 미싱사였잖아요. 열아홉 살 어려울 때 공장에서 만난 와이프.

이수호 돈을 많이 버셨네요. (웃음)

최종인 뒤에서 도와줬어요. 노조 활동한 뒤로는 자주 안 만났더니 주변에서 결혼하네 어찌네 해서 지금 와이프하고 빨리 결혼하게 됐고, 와이프 뒷바라지를 좀 많이 받았죠.

이수호 예. 그래요. 영문 씨는 그래도 전태일하고 가장 가까이에 서 대화도 가장 많이 하고 그랬죠. 혹시 에피소드라든지.

김영문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사실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뇌리를 스치네요. 정말 여기 세 친구들은 삼동회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고, 태일이 죽고 나서도 계속 같이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머리가 좀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장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용주한테 신임을 받기도 했죠. 마지막 그 13일날 현장... 정말 그날의 현장은 저도 참 생각이.

이수호 현장 이야기는 다음에 또 있으니까.

김영문 아 그럴까요? 그러면 뭐 그건 안 하고.

이수호 삼동회 초창기에 있었던 일.

김영문 사실은 바보회가 흐지부지되고 삼동친목회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합류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동화시장에 있었습니다. 동화시장이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동화시장에서 나는 3층에 있고 은하수다방은 2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일이 저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찾아왔어요. 내가 항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보회 때부터 자주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평전에 보면 음학대학 쪽을 바라보면서 돌이서 잠깐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죠. 모범업체를 만드는 계획들 등등. 사실 노동자들이 바보회 때나 삼동회 때나 같이 참석해서 내용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결정적으로 전태일은 ‘모범업체를 만들자’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데모도 해보고 또 안 되면 누군가 한두 명은 죽는 것'까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하소연을 써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저하고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지금 와서도 그런 말들이 정말 가슴에 맺혀요.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개성이 강했던 친구죠. 나는 어떻게 보면 얌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태일이 그 친구도 사실 얌전했어요. 조금 근심이 있는 것처럼, 항시 생각하는 사람처럼 바쁘게 걸어 다녔으니까요. 둘이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요. 나는 일을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바로 공장 앞쪽에서 만났죠. 특히 그 친구하고 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고 주로 상가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수호 승철 씨가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그리고, 아주 기억력도 좋고. 뭐랄까, 똑똑하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많은 역할을 하곤 했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날짜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러 가지 숨은 이야기나 에피소드.

이승철 종인이가 좋게 말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기억 못 하는 것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숫자 기억을 잘해서 몇 년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은 사실 내가 좀 기억을 잘했어요. 65살 넘으니까 그것도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셋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을지로6가의 김영울이라는 그 친구를 중심으로 휴일날 장충단 체육공원으로 놀러도 가고. 그때 유행한 가수가 배호, 남진, 나훈아였는데 그들의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다니다가 사장님을 만나면 “야, 너네들 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냐”라는 한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우리는 정말 꿀을래야 꿀을

수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이수호 전태일 만나기 전부터 그랬어요?

이승철 예.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이브 같은 때는 을지로6가에 윤보선 대통령 친구분의 집이 있었는데 차고가 있었어요.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김영울이 친구였어요. 그 집에서 근무하던 식모들이 3명이나 있었는데 5되 정도 들어가는 들기도 버거운 주전자에 포도주를 계속 갖다줘서 먹고 놀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이였거든요. 평화시장에 등산 다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셋이 등산을 다녔다는 것도 좀 신기했죠.

그런데 태일이를 만나서 환경 개선과 휴일날 쉬기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신문에도 기사가 나고, 임정삼 국장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나는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차일피일 시간을 끌기만 했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때 보람을 느꼈고 정의감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활동하니까 거기에 그냥 휩쓸린 거지 ‘아무나 못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있는 생각은 사실 그 나이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친구가 분신을 하니까 ‘야, 태일이를 괜히 회장 시켜놓고 우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책임감에 죽었나 보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엄청나게 양심이 괴로웠죠.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어요.

전태일이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품을 잡는 친구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나한테 명함을 주는데 딱하니 바보회 회장이라고 박힌 명함을 줬죠. 속으로는 ‘뭘 바보회,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바보회’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아주 건방지게 보였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행동이나 제스처를 좋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다른 사람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 환경이나 노동시간 같은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선생이었죠. 다들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받쳐주고 잘 따르는 그런 나이였다 생각을 해봐요.

이수호 말씀해 보시죠.

임현재 명함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허황된 자기과시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단체를 그냥 친목회로 생각했지만 전태일은 친목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대한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만드는 거였죠. 그에 대한 책임감으로 그래서 자기를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태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김영문 그건 맞는 거지.

이승철 그건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거 아냐? 내 말은 그 당시에 느낀 생각인 거고, 그다음은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

김영문 그때 당시 지금 그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임현재 사실 내가 그때 명함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나도 받았는데 기억이 없는 건지. (웃음)

이승철 나는 받았어.

김영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임현재 조직이 있었잖아. 삼동회.

김영문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몇 명의 모임을 가지고 조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다랗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수호 어쨌든 노동조합이 없었으니까.

김영문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모를 할 때도 평화시장 중간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신문에 낸 것도 그런 이유에서 했으니까 임현재 말이 맞아.

임현재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 병사들만 데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도 하는 거니까. (웃음)

김영문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이승철 그때 당시 인간시장에 모이는 사람이 하루에 한 5백 명 정도가 모여요. 그날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평화시장 3층이었어. 시위를 10월 23일에 하기로 해서.

임현재 그때는 플래카드.

이승철 들어봐. 내 이야기를 듣고 말해. 종이를 붙여서 플래카드를 만들었어. 그걸 말아서 가지고 있다가 데모를 하려 하는데 그때 마 형사를 거기서 만났어. 마 형사가 “뭐 해?” 그랬어. 우리는 몰랐지만 그때 이미 태일이하고 마 형사는 잘 아는 사이였던 거야. 그래서 플래카드를 감추려다가 “그거 이리 줘, 지금 하려고 했던 거 이야기해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마 형사가 그 플래카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태일이가 뛰어 올라간 거야.

김영문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라니까.

이승철 아, 들어봐. (웃음) 아이고, 참. 남 이야기할 때 하지 말고.

김영문 응. 해.

이승철 현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일이가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가니까 경비원들이 두 명씩 각목을 들고 서 있는데 친구들이 “야, 오늘 못 하겠다”고 해서 철수했어요. 나는 공장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고 저녁 모임에 참석했을 때 “야, 이제는 확실하게 하자”고. 그래서 옥상에서 내릴 플래카드랑 옆으로 드는 플래카드랑 두 개를 만들기로 했지. 누가 플래카드를 “형짚을 가지고 만들자”고 해서 그때 각자 백 원씩을 내기로 했어. 그래서 나도 백 원을 냈어요. 그때 현재는 없었어. 포장마차랑 사고를 내가지고. 언제부터 없었어?

임현재 모르지. 첫 번째 날에는 있었고, 아마 첫날 시위 끝나고 우리가 저녁에 회의하러 가면서.

이승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10월 23일 지난 후에 모임에서 회의하고 술 한잔 먹었던 그때 백 원씩을 다 냈어. 그런데 태일이가 자기가 플래카드를 써서 온다고, 저녁에 어느 친구 방에서 개가 그걸 만들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과하고 어디에서 그걸 천으로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그때 태일이가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하자”고 말했죠. 자기가 높은 곳에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서서 구호를 외칠 테니 너희들은 따라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화형식 그것만 하는 줄 알았지 그가 죽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죠.

이수호 예, 그래요.

김영문 들어보니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이수호 예. 잠깐만요. 보고 느낀 대로니까 이게 맞고 틀린 거는 없습니다. (웃음) 전태일은 명함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좋아했으니까 한 거잖아요. 좋아하는 데에는 멋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전태일은 자기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같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자체가 상당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그 당시 짧은 기간이지만 활동하면서 놀러도 가고, 당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최종인 애들은 9월부터 만났지만 저는 신기호 씨가 소개를 해서 1~2년 전부터 만났잖아요. 바보회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삼동회보다 미리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태일이를 알고 있었죠. 태일이 여자친구도 알죠.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미성사예요. 그 친구하고 똑섬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자주 만났죠. 단지 나는 바보회 회원으로는 참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놀기를 좋아해서 그러고 다녔고. 그다음에 삼동친목회 발족할 때에는 애들과 같이 참여를 했죠.

일단 태일이는 사고가 멋져요. 우리를 깨우쳐 줬으니까. 회장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요. 얘기도 들을 줄 알고, 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집약해서 마지막에 자기가 최종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잘해서 우리가 회장으로 모셨던 거고. 그 애가 저하고 노동청 기자실을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태일이를 너무 잘 알아요. 애가 평화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으로 디테일을 잡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기자들이 태일이를 뒷바라지 했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태일이가 죽었을 때 기자들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 기자들 나도 만났어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니까 애는 개죽음시키면 안 된다”고 기자들이 발 벗고 나섰어요. 당시 기자들이 사연을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개죽음시켰다, 태일이를 개죽음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 지역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하자.” 노동청 출입기자들이 이런 다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태일이가 기자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죠.

삼동친목회 활동하고 있을 때 저는 해고당해서 직업이 없었기에 태일이란 행동을 같이했으니까.

이수호 그 당시에 전태일도 해고된 상태?

최종인 해고됐지만 일자리를 안 잡은 거죠. 일자리 잡으려면 저도 잡을 수 있었는데 굳이 안 잡은 거예요. 구인광고가 사방에 붙어 있어요. 그거 보고 자기한테 맞는 직종을 찾아서 사장하고 얘기하면 돼요. 점잖

게 가면 다 받아줘요.

이수호 전태일은 그때 좀.

최종인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태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태일이 본인 스스로가 이 활동에 전담을 했고, 나는 전담보조로 따라다니는 역할이었던 거죠.

이수호 둘이 노동조합 상근자 비슷한 일 했었네.

최종인 노조는 아니죠. (웃음)

이승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생각하면요. 10월 23일 데모를 한다 했을 때 5일 전에 노동청 출입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와서 취재를 해달라”고. 데모 장소였던 인간시장 2층에 경비실이 있어요. 2층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돼 있어. 거기에 기자들이 와 있었고, 그때 데모를 못 한 책임이 약간 부담이 됐어요. 오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했으니까. 그래서 11월 13일 에도 “와라”고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들한테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 있으니까 보러 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들한테 데모를 5백 명이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시장에 모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웬만히 해도 5백 명으로 보이죠. 당시에 그 앞에 고가가 있었어요. 인간시장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가 쪽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할 수 있게 했거든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태일이가 기자들하고 친했고, 그래서 기자들이 여기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그랬었죠.

이수호 그러면서 이제 단체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실태조사 같은 거 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만들어야 된다.

최종인 실태조사는 우리 삼동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저도 그때 실업자 됐을 때인데 공장에 실제 방문해서 설문지를 받았죠.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태일이의 뜻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역할을 했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신나서 같이한 거지 무슨 사명감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개선을 요구한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고. 닭장이 개선된다니 얼마나 좋냐, 하는 신나는 기분에서 한 거죠.

이수호 당시 신나고 할 때 다니면서.

최종인 기사 나온 신문 팔러 다닐 때 얼마나 신났는지 막 누비고 다닌 거예요.

이수호 노래도 흥얼거리고?

최종인 그건 아니죠. (웃음)

이수호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당시에 잘 부르는 노래 하나만 신나게.

최종인 그 당시 아니고.

이수호 그 뒤에라도.

이승철 그 당시에는 남진 노래 좀 불렀잖아. 배호 노래랑 장충단 공원에 놀러 가면서 큰 소리로. (웃음) <올려고 내가 왔나> <어머니> 등 남진의 그런 노래 많이 불렀지.

김영문 원래 종인이는 노래를 잘 안 했어. 후에도 그렇고.

이승철 아니야 우리 같이하고 다녔어. 니가 몰라.

김영문 아이 모르기는 뒤에. (웃음)

이승철 아니. 68년도에 너는 모를 땐데 어떻게 알아, 내가 친한데.

김영문 아니 물론 너는 친했지만. (웃음)

이승철 동네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임현재랑 같이 큰 소리로 부르고 다녔다니까.

김영문 둘이 길거리 다니면서 불렀다?

이수호 그래요. (웃음)

김영문 그래서 제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바보회 때죠. 바보회가 68년도에서 69년도 초까지 활동을 하다가 그 후 잘 안되니 태일이가 삼각산에 들어갔어요. 고생하면서 있다가 가끔 내려오면 항시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가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69년도.

이수호 69년 9월.

김영문 네. 한 번 찾아왔어요. 마침 일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오후에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데 그때쯤 왔어요. 나는 그날 우리 공장에 일 뒷바라지를 해준 후배, 보조했던 여자애 둘이 있었는데 내가 극장엘 데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태일이 왔어. “야, 우리 극장에나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같이 가서 본 영화가 <스잔나>였어요. 배우 리칭이 스잔나를 연기했죠. 내가 주인공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영화를 낙원극장에서 한 번 같이 봤지. 그리고 두 후배들은 보내고.

내가 그때는 송인동 쪽에서 자취를 했어. 자취집으로 가다가 당시 창신동 로타리에 오비비어 비슷한 조그마한 술집이 있었는데 그리 들어가서 맥주를 한 잔씩 시켜 놓고 이야기를 했었어. 영화 이야기였지. 리칭이 연기한 스잔나가 가을에 오동잎 떨어질 때 죽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죽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자기가 죽으려고 마음먹은 어떤 암시 같은 거였어.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같은 이야기들도 했거든요.

이수호 그런 게 다 이제.

김영문 자기는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보회 마무리가 안 되니 삼각산 들어가서 고민했겠죠. 그리고 정리하고 돌아와서 삼동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는 사실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지나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수호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의 시간도 지나고. 그런데 전태일은 바보회 활동하다가 해고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삼각산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평화시장엔 없었잖아요, 한 1년 반 정도.

최종인 삼각산에 한 6개월 있었을 거예요.

이수호 6개월 있었나요?

최종인 6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안 있었어요.

김영문 그랬어요.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이수호 80, 90 아니지 1970.

김영문 69년.

이수호 69년. 기록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김영문 70년 초인지 69년인지 그럴 거예요.

4. 평화시장의 선배들

이수호 얼마 있지 않고 다시 돌아왔고. 바보회나 삼동회 조직했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거나 그런 조직 활동 때문에 다시 취직하기 어려

운, 지금으로 보면 블랙리스트죠. 그 당시 평화시장 쪽에서 취업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실제로?

최종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화시장 주변에 개별 사업장이 2~3천 개 돼요. 태일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주식회사 규모의 큰 공장이나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지, 중책의 간부들이나 이사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집 공장 의류업체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죠.

물론 일을 하다가 본공장에서 ‘애가 엉뚱한 일을 하구나’ 하고 해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고를 당해도 다른 곳에 취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삼각산에 노동하러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임현재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이를테면 태일이가 현재 왕성사에서 일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일했던 공장이 있겠죠. 왕성사 사장과 그 전 일했던 공장의 사장과 아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들 사장끼리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보통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시 취직을 할 때는 전에 일을 했던 사람이나 또는 그 사장하고 아는 사람이면 편하죠. 어쨌든 나하고 연이 닿았던 데에 취직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집광고를 보고 가거나.

이수호 인간시장.

임현재 예. 인간시장 가거나 그랬죠.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거부할 수 있겠는데, ‘아, 저 새끼 건방지게 노동운동이나 하고 다니고, 재 쓰면 안 되겠어’라는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정도였지. 그때 특별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감시하는 그런 조직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수호 선생님들도 활동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최종인 예. 불이익은 없었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언제든 이동해서 직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면접 때 실력을 물어보겠죠. ‘전에 뭐 했냐?’고 하면 살짝 부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이수호 살짝 거짓말하고. (웃음)

김영문 그러니까 태일이가 한미사라는 곳에 있었죠. 저도 한미사에서 보조를 한 4개월 했고 그리고 희도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사진에 같이 찍힌 친구인데 친하게 지냈죠. 원래 태일이는 미싱부터 배웠잖아요. 미싱을 하다가 재단사들의 파워나 힘을 보면서 ‘아, 미싱보다는 재단을 배워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희도에게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희도가 먼저 재단사가 되었기 때문에 희도가 자기 밑에서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수호 일기에 보면.

김영문 태일이가 한미사에서 재단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한미사는 화장실 지나서 경비실 쪽에 있었고. 아까 왕성사 이야기도 했는데 태일이가 70년 그때 왕성사에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마지막 일했던 곳이에요. 저는 2층에 있었고 왕성사는 바로 위층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든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근

로조건을 개선해야 된다,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는데 환경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를 자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직이 없잖아요. 우리 친목회 회원 몇 명 이외에 다른 조직이 없었죠. 그때 다들 노동조합을 알지도 못했으니까요. 아마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서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오지 않았을까. 일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수호 그런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선배들, 노동조합을 아는 선배들도 있었다고.

김영문 있었어요.

이수호 예. '그거 해봤는데 잘 안 돼. 해봤자 안 돼.'

최종인 그 선배들이 누구냐면요.

김영문 신기호 씨.

최종인 아니, 신기호가 아니라니까.

김영문 또래라고.

최종인 신기호 아니고. 그 신기호는 동아대학교 중퇴하고 재단 일의 정식 과정을 배운 시장 원로재단사예요. 의리파에다가 사람 자체가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태일이,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었죠. 그 사람이 딱

“모여” 하면 우리가 모였어요. 신기호라는 사람 대단해. 나중에 노조 초창기에도 일을 했어요. 제가 “형님 와야겠다, 형님이 힘 있으니까 재단사들을 끌어모아야겠다” 해서 신기호를 노조에 끌어들이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평화시장에 나이가 40대쯤 되는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죠. 공장장, 공장장 아들, 사용자,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 앞서서 평화시장에 어용노조를 만들려고 노조설립신고를 했는데 그들이 정식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고 불가가 됐어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통해 진정을 내고 신문에 기사도 뜨니 그들이 태일이를 보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야, 우리 같이하자,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게”라고 제안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 짝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만남으로 그 사람들은 노조 결성되기 전까지 활동을 했어요. 태일이 돌아가신 뒤에도 활동했고, 한편으로 뒤에서 방해 짓도 했던 사람들이예요.

이수호 좀 부정적이긴 했지만 그런 선배들도 있고, 신기호 씨 같은 좋은 분도 있고.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데 그런 영향들이 구체적으로 전태일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최종인 전태일하고 신기호하고는 관계가 아주 긴밀했죠. 전태일이 신기호 씨를 굉장히 따랐어요. 태일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신기호한테 상담하고 의논을 했어요. 나중에 친목회 맡으면서는 신기호 씨 만날 시간이 없어서 우리끼리 의논했지만 조그만 문제들은 거의 신기호하고 모든 것을 의논했었다고요.

나는 신기호 제자, 임현재도 제자. 내가 신기호에게 소개해 줬고. 그다음 영문이는 바보회와 연결되고. 이 사람은 바보회 회원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김영문이를 나는 대단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수호 그 당시에.

최종인 김영문이는 의리도 있지만 사람이 원만해요. 이 세상에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영문이에요. 태일이 죽음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자기가 못다 한 몫을 하겠다고 일흔이 되도록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대단한 친구죠. 우리 친구들은 태일로 인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 믿고 존경하죠. 하여튼 ‘김영문이는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잘되어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이수호 예. 평전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운동이나 세상물정에 대해서 아버지가 실제로 소개도 하고 가르쳐 주었죠. 그렇지만 “너는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양면도 있었던 거고요.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현실에 눈뜨는 기회를 마련해 준 거죠. 그 후에 현장에서 신기호 씨 같은 선배를 만나서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선배들도.

최종인 신기호 씨가 실제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수호 그런데 전태일은 왜 그때 선배들이 “너, 우리랑 활동 같이 하자”고 말했을 때 같이 안 한 거죠?

최종인 사용주가 있는데 거길 왜 갑니까. 신기호 씨는 노조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오직 형으로서의 역할.

이승철 제가 신기호 씨 이야기와 태일이 이야기랑 두 가지 말할 게요. 먼저 태일이 왕성사에서 해고당했잖아. 제가 그때 태일이한테 들

은 이야기예요.

69년도인지 겨울인지 언제 콩고 대통령(69년 니제공화국 대통령 방한)이 왔어요. 우리가 그때 네베게 니베게 했는데 그 대통령이 왔어요. 그때 평창동 쪽 어디서 잠을 자게 됐나 봐. 그런데 태일이 시간이 늦어서 창동을 못 가고 삼각산으로 잠을 자러 가다가 자문밖에서 검문에 걸려 파출소에 들어갔나 봐. 그래서 사정을 설명했는데도 파출소에서 잡아 놓고 안 보내주더라. 그날 밤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하는데 무지하게 피곤하더라.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재단을 다 해놓고 사장한테 “내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피곤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다음 날 출근하니까 “너 어제 일찍 갔잖나”라면서 바로 해고를 당했답니다. 월급도 주지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의 활동이 신문에 난 후 우리가 몰려가서 거세게 항의하니까 체불된 월급을 받았죠. 그 돈으로 짜장면도 사 먹고 차값으로도 쓰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은 저는 신기호 씨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1월 13일이 금요일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때 종업원이 2시 30분에 혈서 쓰고 데모를 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때 조병섭이하고 같이 갔어?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김영문 진철이하고 간 거 아니야?

이승철 아냐. 진철이가 3시쯤에 나한테 왔어. 그때 내 생각으로 진철이가 태일이 타버린 바바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 공장은 밑에 가게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다락으로 올라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위에 공장이 있었거든. 그러니 우리한테 누가 잘 안 찾아왔어. 태일이 오직 한 번 와본 적이 있어. 11월 13일 되기 전에 백 원씩 건을 때 그때 내

가 태일이한테 돈을 준 기억은 한 번 있는데 다른 때는 잘 안 왔죠. 그런데 진철이가 왔더라고. 나한테 “야, 태일이 타버렸다” 이러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날이고 그다음 날이고 저는 태일이한테 못 갔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토요일에 김성길이가 경찰서로 종인이를 만나러 가서 어찌고 하면서 벌금 내주고. 거기서 종인이가 “내 친구들 한 200명 있으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김성길이 우리 조직이 아주 큰 줄 알았나 봐. 그리고 종인이가 경찰서에서 나와 우리 집에 왔어. 같이 하숙하던 우리 형님집에 와서 많이 고민하더라고, 이러이러했다고 하면서.

그다음 날 태일이한테 가보자고 해서 아침 10시에 둘이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깡패 같은 애들이 너희 새끼들이 죽었으니까 책임지라고 난리가 났지. 창동 어머니가 그 사람들 말리면서 “왜 친구들한테 그러냐” 하면서 말렸어. 그래서 잠잠해졌어요. 이소선 어머니가 우리보고 “태일이 얼굴을 보겠냐”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겁나서 못 보겠더라고. “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고, 거기서 종인이가 “어머니, 걱정 말고 계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후에 둘이서 신기호 씨한테 갔어요. 나 그때 신기호 씨 처음 봤죠. 동화시장에서 그 형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이 그 단체 만들어서 하다가 태일이 죽었으니까 너희 친구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끝까지 유지해라” 그 이야기를 우리 둘한테 하더라고요. 신기호 씨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어. 너희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다가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죽인 거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각자 책임감을 느끼면서 나는 오고, 종인이는 다시 성모병원으로 가고. 최종인이는 병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장례까지 치렀고, 저는 공장에서 일을 했고. 장례 치르고 나서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할 때 제



전태일 장례식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가 적극적으로 나서죠. 그래서 11월 27일 결성대회 할 때, 우리 공장에 근로자가 13명이 있었거든요. 그날 공장 작업을 일찍 끝내고 내가 13명을 다 몰고 가서 참석해요.

임현재 그때 신기호 씨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약간 달랐죠. 신기호 씨는 그때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었을걸요.

이승철 결혼했었어. 나이가 좀 있었어.

임현재 안정적인 생활에 제일 우선으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던 입장이었고.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정의다 생각하면 무조건 뛰어들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었죠. 그래도 한번은 우리가 “형님도 같이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잠시 오기도 했었는데, 형님은 활동을 하게 되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생계 대책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왔나 봐. ‘아, 나는 같이 활동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셨던 걸로 기억을….

최종인 신기호가 전태일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이승철 존경하는 선배지.

최종인 나도 신기호 씨를 존경하니까. 그 양반이 나를 재단사로 만들어주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스승이죠. 태일도 그 사람이 스승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이 불의를 보면 태도가 드러나죠. 심성적으로 의리 있는 사람이 있고, 심성적으로 비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신기호, 태일은 심성적으로 정의파야. 나는 태일을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실업자여서 부담이 없었고, 가정도 보살필 필요도 없고. 실업자여도 선배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아무 데나 취직을 할 수 있었죠. 내가 태일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태일의 사고방식이 정의롭다는 것을 알았고 많이 배우게 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들을 본받을 점은 바로 정의로운 사고방식 이거다 했는데 가버리고 나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찢어지는 심정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다.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수호 그렇죠.

김영문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배들은, 저희가 당시 보조 생활할 때 재단을 했던 분들이 한 예닐곱 명으로 네댓 살에서 열 살 정도 더 먹은 분들이었어요. 그 선배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도 노동조합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너네들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그래서 지은 이름이 바보회. (웃음) 그 상황이 바보회를 만들게 된 동기예요.

이수호 평전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김영문 저는 같이 들었으니까.

최종인 그쪽에서 만들려고 했던 노동조합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용자나 공장장이나 사용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태일은 얘기할 때.

이승철 그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야.

최종인 야. 그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도 없다고.

이승철 그건 이후의 이야기고. 여기는 그때 전 이야기고.

김영문 그렇지 나는 전 이야기고.

이수호 어떻게 전태일이 신기호 씨에게 상당히 기대를 했고 많

이 배웠던 선배고. 그 선배가 안내도 잘 해주는 역할까지는 했네요. 어쨌든 당시에는 같이할 수 있던 그런 형편은 아니었고.

최종인 우린 20대고, 그 사람은 40대.

이수호 어쨌든 젊은 사람들끼리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처음 조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바보회였고. 바보회가 다시 구체적으로 삼동친목회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발전한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더 탄탄하게 만들어지면서 결정적으로 두 달 안 된 55일이지만, 정말 실제로 많은 역할을 했고 한편 문제점도 드러냈고.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전태일이 그렇게라도 해서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고,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시간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그전에 만난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사이에 만나서 우정도 단단하게 다지고. 의리, 정의, 삶에 대한 책임감 등 삼동친목회 시절에 교우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진 것도 사실이고.

최종인 삼동친목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결정적으로 태일이 죽게끔 만든 역할을 했던 거야. 우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건데... 친구들 성격이 적극적이었고, 개성이 전부 달랐어요. 영문이는 그때 군대 갔을 때고, 삼동회로 보면 주로 이승철이 최종인이 임현재 신진철이에요. 이 친구들을 옛날 지도자들이 많이 보라고 했던 삼국지 인물들에 빗대어서 얘기했죠.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장비, 조조, 유비가 있잖아요.

이수호 그러니까 선생님이 유비.

최종인 난 유비, (웃음) 유비 안 할 건데.

이수호 임현재 선생이?

최종인 장비, 조조. (웃음) 서로 각자에게 인물에 맞게 정해주고 그 인물들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삼국지를 읽으라고 해서 몇 번씩 봤습니다.

이승철 삼국지를 좀 잘못 봤어. 내가 잘못 읽은 것 같아. (웃음)

최종인 이 멤버들이요. 삼동친목회 할 때부터서 적극적이었죠. 젊으니까 가만히 참지 못하고 부글부글 불 지르는 스타일. 가서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행동파들인데 친구가 먼저 가니까 그 죄를 안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이승철 그때 우리가 스물두 살이었거든요, 스물두 살은 요즘으로 보면 어린애지. 그래도 우리 스물두 살 그때 어찌 보면 세상과 부대끼고 살아서 생각들이 좀 성숙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그건 우리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정의감 때문인지 사명감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말했듯이 맹목적으로 일요일 쉰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활동했고. 다만 내가 변한 계기는 노동조합 결성하고 창동어머니 집에 가서 일기를 보면서예요. 그다음에 장기표 씨를 만나면서 더 많이 제가 변하기 시작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그것은 우리 운명이었다, 여기까지 듣고 우리 감독님 조

금 보충하실 것 있으면.

5. 인간 전태일

김대현 정말, 말씀 잘 들었구요. 원래 저희가 예정된 질문이 있었는데 미리 예고편식으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오늘 궁금했던 내용들은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평소에 보면 전태일 열사가 굉장히 영웅적이고 비범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간적인 면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만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노래를 잘 부르고 당구는 어느 정도 쳤고, 하여간 인간 전태일로서 동시에 청년 전태일로서 저희 세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에피소드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삼동친목회 이야기 중에 총무 맡으시고 서기 맡으셨다고 했는데 의사결정 구조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태일 열사가 지명을 하신 건지, 그것도 아니면 회원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추천이 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수호 예. 그 뒷부분부터 말씀 부탁.

이승철 뒷부분은 제가 할게요. 친목회 모임을 처음 결성하는 자리에서 전태일이 임원을 선출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 태일이야 해야지” 그래서 전부 전태일을 회장으로 추대했고. 그다음에 총무를 뽑는데 누구를 뽑아야 할까 서로 눈치를 봤죠. 그런데 우리 친

구들이 세력이면 세력이잖아. 말본새가 있고 임현재 씨는 활동에 대한 발언도 많이 하고, 나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고. 대뜸 최종인이 총무는 임현재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박수 짝 치고, 서기는 누가? 하니까 이승철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 (웃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선출이 됐던 것 같아요. 지명하거나 자원한 건 아니에요.

이수호 그러니까 최종인 선생님께서 다 추천을.

이승철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최종인 기억 안 나요.

이수호 배후의 역할을.

김영문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을 것 같아.

이승철 그때는 영문이기도 몰랐고,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어서 누가 누구 추천하기가 좀 어려웠죠.

이수호 그럴 때 먼저 선수를 치면, 절묘하게 된 것 같아요.

최종인 실제 둘이 똑똑해요. (웃음)

김영문 기억력이 좋잖아요.

이수호 예. 그러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여서 자주 토론하고,

회의도 하고.

최종인 네. 삼동친목회에 대해서 한마디 더하면요. 우리 셋을 포함해서 삼동친목회 멤버는 열댓 명이었어요.

이승철 회의할 때는 한 아홉 명 정도.

이수호 회의할 때는?

김영문 아홉 명이면 되니까.

최종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과 같이 어떤 문제든지 토론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수호 음. 세 분이 합의하면 다 됐다 이거지?

최종인 이들이 행동 개시하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그 정도로 행동파와 지략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청계노조를 끌어온 것도 그 힘이었지.

이수호 야. 50년을 이어오고 있네.

최종인 그 힘이었지. 이게 태일이 힘이에요. 태일이 정신의 힘이 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재 태일이의 꿈이 어찌면 돈키호테와 같은. (웃음)

최종인 그리고 그때에 종교단체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외국 종교단체로 독일에서도 우리 청계노조에 지원을 해줬어요.

임현재 많이 했지.

최종인 못 찾아 먹었지. 우리는?

임현재 아니. 자꾸 얘기하면 다 횡령한 걸로 되니까. (웃음)

이승철 아니 80년대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어찌 됐든 우리 삼동친목회는 55일 동안을 계속 노동운동에 집중해서 살았었다고.

이수호 운명이었다.

이승철 우리는 그때 지나서 보니 운명이었다.

이수호 자, 전태일의 여러 가지 모습이 지금 간간이 나왔습니다. 멋쟁이고 노래도 잘하고, 당구도 치고 여러 인간적인 면들이 이야기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 에피소드 등 생각나는 것들 하나씩 말해 보세요. 평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일이가 잘 부른 노래는?

김영문 맨발의 청춘이죠. 상황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노래가 딱 맞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유행하고 있었고, 최희준 씨가 불렀죠.

이수호 그럼 영문 선생님부터 태일이의 인간적인 면에 대한 아직

도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로.

김영문 인간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시 보면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달랐다고 봐요. 성숙했다고나 할까.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다들 어린 나이였잖아요. 그런데도 태일이는 우리보다 생각이 깊어요. 무엇이든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생일파티하고 중국집에서 가볍게 모이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어요. 원래 그 친구도 술을 안 하고 나도 술을 안 했습니다. 중국집에 빼갈이라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거로 한 잔 정도 먹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형이 술을 너무 많이 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술을 안 먹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특별히 무엇을 한 건 아니지만 항시 어린 여공들에 대한 처지나 상황 등 그런 생각을 나한테 많이 들려줬던 것 같아요.

이수호 예. 연민의 정 같은 마음이네요. 술은 거의 못 마시고.

김영문 술은 거의 안 마셨어요.

이수호 또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이승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사실 ‘과음하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대목 없거든요. 그건 한국적 종교에만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그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런데 내가 짓궂게 굴었죠. 술을 먹어야 같이한다, 담배를 피워야 같이하겠다, 농담 삼아 말했더니 그걸 했어요. 그래서 ‘아, 재는 우리하고 같이하려고 결심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가 대중조직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과 같이하기 위해서 곳은일도 마다했던 그의 행동들이 참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최종인 태일이 여자친구.

이수호 있었어요?

최종인 예. 있었어요

이승철 000?

최종인 저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이수호 지금은 할머니 됐는데. (웃음)

이승철 아. 괜찮아. (웃음)

최종인 할머니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내가 태일이 가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계속 보살폈어요.

이승철 계속 노조에 왔었어.

최종인 노조에 왔지. 같이 뚝섬에 놀러 가기도 했으니까. 태일이 가 유별나게 여자들한테 잘합니다. 물론 시다들한테 잘하지만 자기 애인

한테도 엄청나게 정감 있게 잘해요. 그래서 나는 태일이는 인간적인 정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정이 많으시지. 우리를 아들 삼아서 정을 나눠 주기도 하신 어머니이지만 태일이야말로 진짜 정이 많아요. 선배를 존경할 줄 알고, 정을 나눌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태일을 따르지, 누가 따르겠어요? 친구들도 건방 떨면 바로 싫어하죠. 그런데 태일의 주장은 올바른 이야기이고, 거기에다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 나도 그런 점을 배우게 됐죠.

이수호 정이 많았다.

임현재 나는 태일이라고 삼동친목회 활동하면서 어떤 인간적인 기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아요. 굉장히 사무적이었던 것만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떠난 뒤로 자연스럽게 묻혀 있는데 전태일 때문에 노동운동을 하게 된 입장에서 전태일의 인간적인 얘기들이 안 나올 순 없잖아요.

모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태일의 모습을 통해 듣거나 어머니를 통해서 듣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전태삼한테서 전태일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고.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 좀 돈키호테 같죠. 상당히 다양한 면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엉뚱하지만 꿈을 갖고 그걸 실현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최근에 돌이켜 보면 나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수호 돈키호테 같은 엉뚱한 데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임현재 그런데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엉뚱한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웃음) 현실적으로 봐선 상당히 엉뚱한 얘기죠.

이수호 그렇죠. 시대적 저항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최종인 그때 우리가 커다란 바위, 아무리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는 바위를 깨려고 도전한 그 행위가 굉장히 무모한 거죠. 그러나 전태일은 거기에 도전을 했다는 거죠.

이수호 또, 뭐?

최종인 됐어요.

이수호 예. 바보회, 삼동회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들 하셨는데 혹시 이 이야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하고요. 오늘까지 전부 세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세 번 남았습니다. 『전태일평전』 관련해서 4부, 5부가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은 제 생각에 분신항거 이후 청계피복노조 건설하는 11월 27일까지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만.

김영문 11월 13일부터 이제 또 나오니까?

이수호 예. 이후 진행은 다음이 전태일 사상이고요. 그다음 5회차가 11월 13일, 마지막 6회차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계피복노조 건설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촬영감독님은.

허철녕 예. 여자친구에 대해 조금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나이 때 이성이라는 감정은 사실 크잖아요. 같은 업계의 미싱사였다고 하니 아마 그 안에서 영향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명을 밝히실 필

요는 없고 어떤 상황이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지.

최종인 둘 사이 에피소드를 제가 알 수는 없고. 내가 알 이유도 없고. 다만 둘이 친하게 지냈고, 태일이가 굉장히 아꼈고 놀러도 자주 다녔다는 정도죠. 태일이가 그만둔 마지막 공장, 왕성사 거기 미싱사였어요. 일류급 미싱사.

이수호 전태일이 정이 많죠. 특히 어린 여공들에 대한 연민의 정, 청옥공민학교 시절의 부반장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평화시장 2층에 당시 무슨 이모집이었죠?

임현재 모녀식당.

이수호 아, 모녀식당. 마지막에 거기 모녀식당에도 찾아가서 이야기했고. 어쨌든 여성에 대한 정이 애뜻하고 특별했죠. 그런데 아까 두 분이 티격태격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좀.

김영문 아.

이수호 태일의 여자 문제. (웃음) 지금 질문하시는 게.

김영문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이예요. 나하고 위, 아래층으로 있었지만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죽고 나서 나도 그 이야기를 좀 들었죠. 어찌 보면 당시에는 재단사들이 공장 총책임을 맡고 있기도 해서 인기가 많았죠. 그리고 재단사들이 일감을 미싱사에게 나눠 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싱사들이 재단사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

했었을 수도 있고.

이수호 그럼 재단사들은 미싱사 애인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김영문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요.

이승철 미싱사 애인이 있어. (웃음)

임현재 아니, 수적으로 여성이 많고 남자는 적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우선 있었고. (웃음) 그런 데다가 재단사가 약간의 권력도 가졌잖아요.

김영문 그럼. 책임을 가지고 일감을 나눠 주는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나눠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배분하는 건데. 아마 그런 작용도 있지 않았겠나 싶고요.

이승철 전태일이 이야기했듯이 사실 사장들이 월급을 올리는 문제도 대부분 재단사들한테 물어봐요.

김영문 네, 같이 의논합니다.

이수호 예. 그러면 그 정도 하고요. 더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치고 룩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부

전태일 사상

인터뷰 4회차

2020년 3월 23일(월) 14:00~17:30

전태일 친구들

임현재

전태일 친구들만 전태일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2만 7천 청계노조 조합원들이 하나같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인간관과 사회관

이수호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만났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뒤숭숭한데 그래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얼굴도 보고 그동안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태일 친구분들 노동구술기록사업을 전부 여섯 번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고,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흐름을 잘 유지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도 자리해 주셨는데 저는 가능한 한 많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말씀들은 아카이브사업의 일종으로 정말 잘 기록하고 보관해서 후대에 하나의 기본이자 정본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 첫째니까 내용에 큰 부담을 안 가져도 되고 또 어디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을 편집해서 따로 책으로 내거나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하는 건 다른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평전』 4부에 해당하는 「전태일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현재 선생님.

임현재 고맙습니다. 임현재입니다

최종인 최종인입니다.

김영문 반갑습니다. 김영문입니다.

이승철 이승철입니다.

이수호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전의 4부는 바보회 활동으로 해고된 전태일이, 아무 표정 없이 죽은 얼굴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중년 남자의 모습을 보고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현실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편지글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전태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약육강식에 기초한 인간들 사이의 생존경쟁, 즉 사람이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태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의 일부이자 전체의 일부이니까 모든 인간이 서로의 권리와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노동 현실을 바꾸고자 자신을 헌신한 까닭도 이런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텐데요. 오늘은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의 모순이 발생하는 까닭 및 인간에 대한 전태일의 이해와 함께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인간과 사회의 본질은 어떠한지 주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전태일을 만난 당시가 아닌 지금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무래도 사상이 주제이다 보니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평소처럼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상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큰 무엇이라기보다 생각을 어느 한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것, 그게 자기 사상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답변을 하실 때 고려하실 수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경험적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또 ‘사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본질적으로 서로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자본가는 무조건 노동자들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기 위한 구조인지. 이런 생각들을 중심으로.

또한 노력을 통해서 사회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당시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했으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 승철 씨.

이승철 아주 어려운 문제 같고요. (웃음)

이수호 예, 어려운 걸 쉽게 말씀해 주시면.

이승철 태일이 일기랑 조영래 변호사가 쓴 평전을 보면, 조영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전에는 조영래 변호사의 체계적인 사상이 거의 70퍼센트 정도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도 태일이 죽고 나서 일기를 보고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지만 태일이 써놓은 글들을 사상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거든요.

다만 그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다음 일기에 삼각산에서 내려올 때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이러한 글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내려왔다는 걸 그걸 보고 느꼈고. 또 모범업체를 만들려고 눈을 기증한다고 했다가 반송된 편지를 그 일기 중에 제일 먼저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

게 눈을 기증하고 돈을 받아서 사업체를 한다고 하나. 다음으로 그가 아주 충격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어렵게 살았지만 그보다 더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전태일이 아주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보고 느꼈던 것도 많고. 그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가 무슨 사상적인 책을 따로 봤을 리도 없고. (웃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일이 죽고 나서도 한 12월달까지는 사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웃음)

이수호 지난번에도 우리 이승철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어때요? 승철 씨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자체에 모든 걸 쏟았지만 그 당시 사회가 제대로 된 건지, 공정한 건지. 또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어땠는지 그 당시를 회고해 본다면?

이승철 저는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다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빨리 미싱을 배워서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왔기 때문에 월급이라든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나도 재단보조로 일하는 동안은 재단사가 돼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 하나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했지. 전태일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까지 사회의 모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다만 지금의 생각은 다르지만요.

이수호 임현재 선생님께서는 태일이를 만나고 함께 삼동회 활동을 하면서 이게 개인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면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충분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됐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혹은 지금 사회를 바라보는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임현재 전태일을 만나고 삼동친목회 활동을 하면서 시다들의 실상이 나온 거죠. 시다들도 그렇고 미싱사도 그렇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남겨진 임금을 거의 안 주다시피하고. 마치 그 당시 불문율처럼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못치면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토론이 마음에 들었던 거구요.

그다음 전태일 사건 이후. 전태일은 과연 업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동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분신자살을 한 거냐? 하지만 우리는 일기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일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태일이가 우리들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묘비에도 보면 기독교 청년 전태일이라고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본인의 신앙심이 인간사랑의 정신을 더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봤었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뇌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계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전태일은 굉장히 단순했죠. 아직 그렇게 때가 많이 묻지 않은. 그래서 인간사랑에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요.

그리고 노동운동과 이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

고 그게 민주주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개네들 키워야 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중요성도 빠져리게 느꼈고. 그걸 탈출하기 위해 나중에 운동의 꿈을 접어야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바뀌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만 잘 사놓으면 계속 부자가 되는 모순된 경제 제도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겪었죠.

이수호 예.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전태일평전』을 보면 그 당시 이른바 사업주, 상위자죠. 사용자들이 퇴직금도 떼먹고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이런 걸 이른바 착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최종인 퇴직금이라는 제도는 없었죠, 그때.

이수호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도 없었으니까.

이승철 알지도 못했죠. (웃음)

이수호 그건 그런데. 한두 달 급여를 못 받고 나오잖아요. 만약 관두면 아예 일한 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려고 그런 건데. 그 당시 사업주들이 다 그랬으니까 관행처럼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 사업주들의 횡포에 대한 실태나 그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좀.

최종인 평화시장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제도적으로 갖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모든 임금관계도 마찬가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게 아니라 사용주가 그만두라고 했더라도 나머지 잔여 임금을 받으려면 한참 뒤인 ‘선달 그믐날 오라, 명절 때 오라’ 이런 상황인데요. 전태일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태일이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정의에 앞장서는 사람. 결론적으로 요즘에 와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영문 씨는 바보회 모임하면서 태일이랑 같이 활동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보회 활동은 안 했어요. 당시 나한테는 공장에 와서 어디로 놀러 가자 이런 정도 이야기만 하다가 태일이랑 알게 됐고.

그러다 태일이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사회에 고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삼각산에 갔다 와서 갖게 된 것 같아요.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고발을 할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연구를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삼각산에 갔다 와서 시장에 재취업을 하고 재단사들을 모집합니다. 삼동친목회를 만들고 그 힘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삼동친목회 회원들이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 삼동친목회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을 그만두게 돼요. 저는 태일이랑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태일이 옆에 항상 있었죠. 그런 힘을 태일이가 얻고. 방송국, 노동청, 신문기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삼동친목회 힘을 빌린다면 이 지역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지 않겠나.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정의롭게 자기가 앞장서고. 아까도 임현재 씨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태일이가 종교를 믿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례식 끝나고 기독교 청년 전태일이라고 묘비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기독교 청년 전태일’ 그리고 ‘근로자들의…’

이수호 뒤에는.

최종인 뒤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상도 태일이가 가지고 있었고. 꼭 평화시장, 이 지역을 위해서 평화시장만 개선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정의로운 사고방식을 가졌지 않나.

태일이가 죽고 나서 자기 이상이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말하자면 김문수 씨라든지 대학생들. 지식인들이 태일이의 울부짖음을 듣고 나서, 많은 종교인들이 태일이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다’ 이렇게 평가도 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교회단체들도 예수에 준하는 십자가를 멘 사람 아니냐는 얘기들을 했고. 당시 외국의 종교단체들이 우리 노조 할 때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신앙도 있고.

자기 하나 불태움으로 인해서 사회에 고발을 하지 않았나. 또 그 고발정신에 바로 정의가 없었다면 가능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예. 어떻든 전태일도 그렇지만 친구 네 분 모두 그 당시 다 가난했잖아요. 전부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면서 공장에 가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러 가거나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네 분 친구들을 보니까 심성이 다 착하기도 하고, 참 시대 상황도 그렇고. 학교 못 가고 일을 해도 나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지런히 일해서 빨리 돈 벌고 제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전태일처럼 이 사회의 무언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같이하게 되는데. 영문 씨 같은 경우 태일이하고 사업장이 가까이 있었던 인연으로 바보회 때부터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당시 사회 및 기업가들의 횡포에 대해서 태일이나 김영

문 선생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고, 지금 생각해 보니 사실 이랬던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

김영문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전태일을 좀 더 빨리 알았고 바보회 활동을 같이하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보회를 만들면서 전태일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하면서 근로기준법책을 구입하고, 자기가 먼저 터득하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보회를 만들게 됩니다. 동대문 평화시장 맞은편에 헌책방들이 쪽 있죠. 제가 보기에 거기 대학천 상가에서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상적으로 본다면 저희하고는 전혀 다른 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찾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을 읽어 보니 42조, 45조 등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은데 왜 평화시장에는 그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또 바보회가 끝나고 자기가 직접 노동관에 가서 힘든 사람들을 보며, 부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대우가 너무 다르지 않은가. 다 같은 인간인데 왜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일이가 사상적으로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어떻든 전태일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고민이 깊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쳐보기 위해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일을 아무나 같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슷한 생각을 했고 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바보회나 삼동친목회 할 때 조직 활동을 같이 시작하셨는데.

우리 전태일 친구가 그렇게 분신항거한 지도 50년이 다 되어갑니다. 11월 13일이면 50년인데, 그동안 쪽 살아오면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 사회는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가,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 전태일이 어떻게 생각했는가가 아니라 선생님들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승철 씨부터. 인간이란?

이승철 제가 태일이 일기를 본 다음에 충격을 받고. 그의 유언 중에 항상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예요. 그것은 태일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던진 숙제이자 의무를 안겼던 거예요. 나는 지식인들도 그걸 보고 양심이 깨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과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부조리를 그때 알았어요. 그때 우리 사회나 나라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방 이후에 전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평이 미국이나 정부에서 빨갱이로 몰아 힘을 못 쓰고 북한 쪽으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남한에는 자본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자본주의라는 게 끊임없는 경쟁, 남의 것을 뺏아서 자기가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노동자들, 간부들의 독재에 의해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데 그것을 신봉했던 지식인들이 다들 변절을 하게 되죠. 제가 그때 느꼈던 세상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에 갇혀 있고. 또 스크린, 스포츠, 섹스라는 쓰리에스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최대한 선전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없앤 거죠.

내가 언제 들으니까 독일 같은 곳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첫 번째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성교육이라고 해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성폭력이 범 죄라고 인식하고 없어져야 정치를 깨끗이 할 수 있다 해서 가장 먼저 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정치교육, 그리고 자연교육. 독일은 이 세 가지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요. 3학년쯤에는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과정을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에서 방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교육을 한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성희롱 같은 성폭력이 없게 하

는.
독일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매매 집창촌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자본주의에 대한 것이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호 인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특히 자본주의의 폐해, 이런 것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럼 임현재 선생님께서는 사회를? 인간을?

임현재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한 마음과 남의 것을 뺏고 싶은 마음. 아니 뺏고 싶다가보다 자기가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려는 그런 욕심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착취 구조를 막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권리행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수호 예. 그러니까 지금 임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제도란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법제도 이런 것들?

임현재 법도 그렇고 교육이라든지. 아까 승철 씨가 얘기했듯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정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잘 가르치고. 언론도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해서 왜곡시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치 기준이 많이 왜곡돼 있는 거죠.

이수호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상위의 체제. 예컨대 자본주의 체제나 이거는 또 다른 말씀이고.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사회다.

최종인 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자본주의나 다른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장기집권하며 집권자들이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외면하는 과정에 사회의 모순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71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김대중 씨와 박정희가 출마해서 막상막하로 선거를 치렀어요. 당시 우리가 노조 활동할 때 김대중 씨 선거 운동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선생도 전태일 문제를 전국에 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자기 권력의 이용으로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수호 어쨌든 사회도 장기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살다 보니까 인간에게나 사회에 그런 일이 되게 많더라.

김영문 (웃음) 어려운 대답인 것 같은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그러지 않나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예. (웃음)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착하신 분들로 변하신 건지 (웃음) 우리 사회를 좋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전태일의 가능성

이수호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전을 통해서 전태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전태일은 비교적 짧은 생애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불합리한 자본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가를 비롯해서 노동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고발하는 저널리스트이자 언론인. 또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소설가. 소설 초안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법학자. 그리고 노동 착취 없는 사업장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가. 잘 아시는 대로 모범기업 같은 걸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사와 성경의 원리를 토론하는 신앙인의 모습까지. 전태일은 참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태일과 함께 짧은 기간을 보내면서 선생님께서는, 당신이나 또는 미래의 전태일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태일을 보냈지만 선생님들은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삶까지 바뀌었는데.

만약, 만약입니다. 전태일이 그렇게 분신항거하지 않고 계속 삶을 영위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전태일도 바라는 게 있었을 거고. 당시의 여러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예측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자기 느낌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전태일의 말과 행동이 다른 노동자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로 어떤 측면에서 느낄 수 있었는지. 또는 만일 전태일이 지금 이 시기에 있었다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 같은지. 아까 쪽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인을 해서 지금쯤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까부터 (웃음) 여러 가지. 그리고 작가 또는 기업인이 될 수도 있었고, 신앙인도 있고요.

만일 선생님들께서는 지금의 사상을 가지고 노동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이걸 선생님들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전태일을 만나고 지금까지 전태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만약 그때 다른 길로 갔으면 실제로 뭐가 하고 싶었는지, 이런 얘기들. 또한 전태일과 인연으로 노동운동의 최전선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사업가로 살기도 하고. 대부분 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종인 씨부터.

최종인 개인적으로는 태일이를 알게 되면서 그리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것을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태일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한 모든 것이 다예요. 삶 자체도 태일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계속 운동을 못 한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태일이에게 기념관이 생기고,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태일이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생활도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그만두고 사업을 했는데 ‘노조 하는 놈들이 다 깡패들인데 얼마나 잘하겠냐’고 비웃어서, 열심히.

이수호 더 열심히?

최종인 더 열심히. 진짜 잠 안 자고 밤낮으로 열심히 뛰었죠. 내가 신평화시장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원래는 사업하기 전에, 장인이 생선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조 그만두고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한 1년 했어요. 그냥 막노동이에요.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욕을 많이 해야 해요. 자기들끼리 욕설을 막 하면서 멋대로 생선을 크게 작게 갈라가는데. 그걸 못 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심성적으로 남에게 험한 소리,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인이 도와주셔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후배들이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살아야 하니까 사업을 한 거죠. 사업을 할 당시에 신평화시장에서 1~2등 안에 들 정도로 ‘노조하는 놈들이 엄청나게 장사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태일이를 통해서 저는 인생이 바뀌었고 그만큼 내 자신이 성장했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죽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 항상 눈물이 나오고. 그 순간 내 앞에서 쓰러지고, 내가 옷을 덮고 했는데 눈물이 나서 그런 얘기를 잘 하질 못해요. 그런 과정에서 태일이의 뜻을, 진짜 그 애가 말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이수호 예. 현재 씨는?

임현재 태일이가 봉제공장 노동사업장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순진한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수호 사업가로는 안 맞는 분이였다?

임현재 예.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은 오히려 성직자나 아니면 정치인 정도의 길이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당시 모습도 달랐고, 친구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투박한 말투와 욕설 섞인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마치 전도사의 언행처럼 그런 품행이 방정한. (웃음)

이승철 존댓말도 딱딱 써가며. (웃음)

임현재 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성직자 또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 큰 대형교회는 아니고, (웃음) 그랬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그때 학업을 더 계속할 수 없어서 너무 기초적인 공부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정도의 실력으로 청계피복노조 지부장을 했던 걸로 충분히 만족하지, 더 많이 하는 것은 민폐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그때 잘 그만뒀는데 기초를 조금 더 공부해서 아주 달변인 정치가가 됐으면 좋았겠다. (웃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영문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전태일이가 생각했던 부분을 보면 너무 어렵긴 했으나 뭔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모범업체설립에 대한 생각은 바보회 때부터 저하고 같이 잠깐씩 이야기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략 말하자면 바보회를 꾸려가면서 조직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임 장소도 없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터라 전태일이 “내가 모범업체를 만들어서 이 시장에 다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노동자들에게

도 보여줘야 되고 업주들한테도 보여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그런 의도에서 모범업체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걸로 돈을 벌기 위한 거는 절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진짜 그 친구 아버지한테라도 사업 설명을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건데 그럴 친구가 없다,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보회 모임을 창동 집에서 했을 때인데 그날 밤을 새우면서 새벽에 보니까 어머니가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태일이 굉장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은 게 어머님한테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됐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깊었고, 운동에 대한 부분은 태일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많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태일은 자기의 고뇌 속에 죽음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예. 그렇죠. 어떻든 영문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군대 입대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김영문 현장에.

이수호 다른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는 현장에 바로 결합을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김영문 운영위원을 하고.

이수호 그러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와서 지부장 하시오” 그러니 다시 합치게 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러한 자기 삶은 어떻게 생

각하세요?

김영문 저는 항상 전태일의 죽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수호 안 만났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김영문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진짜. 그래서 78년도에 노조에서 “야, 니가 와서 같이 해줘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로 거기가 월급이 많아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하니까.

우리 사장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하러 가냐, 그렇다고 니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어려운 거기를 왜 가려 그러는 거냐.”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도 전태일이라는 친구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간다고 나왔는데, 오래는 아니고 한 1년도 채 안 돼 그만둡니다. 과정이 그렇습니다. (웃음)

이수호 승철 씨는?

이승철 저는 전태일을 만났을 때, 평전에는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태일리와 우리가 회의할 때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을 때 양태종, 황종욱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처음 들었었고.

그런데 그때 전태일은 모든 이야기에 기독교적인 사랑이 엄청나게 배어 있었어요. 근로기준법 45조에 주휴일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걸 교회식으로 주휴일이라고 표현했지 주휴일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먹는 걸 제가 짓궂게 막걸리도 먹여 봤고 담배도 피우게 했죠. 제가 그때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걸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그러면 안 한다’고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하여튼 기독교적 사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종교인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사실 그렇게까지 신적인 존재로는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가 종교와 예수에 대해서 장기표 형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71년인지 72년인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그때 예수는 사회운동가다, 병들고 약한 사람들만 데리고 조직은 없는 사람, 권력을 깨트리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이지 그가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전태일은 스스로 죽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태일이 더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전태일이 지금 살았으면 뭐 했을까인데 저는 죽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도 세상은 지금까지 결코 전태일이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다. 그때 동아일보에 김중배 씨가 쓴 「그게 이렇지요」라는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에 보면 ‘비분강개하여 죽음으로 치닫기는 쉬워도 그것을 참아가면서 의를 찾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운동권 내에서 그 글귀에 대해 상당히 이야기를 했어요. ‘죽고 싶더라도 참고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태일은 그걸 참으면서 살 수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서 적어도 죽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은 지금 태일이 살았으면 무엇을 했을 거라는 걸 제가 짐작해서 이야기한 거고.

아까 최종인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노동조합을 하게 된 동기는, 저한테는 전태일도 중요했지만 최종인이 가장 중요했어

요. (웃음)

이수호 아, 그랬어요? (웃음)

이승철 지금은 내가 최종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적어도 80년 이후까지는 최종인은 어찌 보면 내 멘토 같았어요. “월급 많이 받고 있네. 야, 니가 나와서 해야 한다.” 그러면 갔어, 했어. 그 뒤에도 79년도에 양승조 쫓아내야 하는데 오라고 해서 또 가서 했어. 그래서 종인이 때문에 징역도 살아보고.

그 후에 내가 장사를 시작했을 때 종인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현재랑 친구들도 도와주고 그랬죠. 그런데 종인이 때문에 인생 절반은 그렇게 살았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절반은 운동권에 있는 분들이 가르쳐준 의식으로 살았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세상에서 뭐를 하고 살았으면 가장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수학은 0.001이라도 틀리면 안 돼. 그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반도체라든지 아주 정밀한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그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를 하거나 하고. 그다음 역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알고 앞으로 안 좋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흥경래난이라든지 동학 혁명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알 수 있거든. 그다음에 국어를 왜 배우는가? 국어는 정확하게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방정식 공부 잘해도 나와서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컴퓨터가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걸 판단을 하는데 영점 몇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나.

그래서 종인이 늘 평화대학 하는데, 평화대학은 사실 세력이 없습니

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법조계를 모두 장악해서 세상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느낀 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었다면, 역사 공부를 해서 대학교 교수가 되어 신입생들한테 역사 강의를 하고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이수호 아까 종인 씨는 태일이 때문에 삶이 완전 바뀌어버려서 약간은 불평불만. (웃음)

최종인 아니에요.

이수호 얘기를 들으니까 승철 씨는 종인 씨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됐다고.

최종인 태일이랑 삼동친목회 활동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임현재도 쉬고 있을 땐데 먹고살아야 하고. 그때 당시 쫄바지가 유행했어요. 내가 의류 일을 했으니까, 통일상가에서 쫄바지를 떼어다가 모래내시장 좌판에 깔아놓고 팔아서 용돈 좀 마련하고.

태일이를 계속 쫓아다니는 게 재밌었어요. 이 지역을 개선한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태일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태일이를 도와야겠다 했는데 끝까지 돕지 못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태일이 일을 이어서 하고. 그리고 나는 태일이 뒤에 두 번째로 죽을 사람이 최종인이다. 당시 그렇게 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수호 본인도 그렇게?

이승철 본인이 그렇지. 누가 그래. (웃음)

최종인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2차 투쟁하면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노조에서 죽을 고비가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겼는데 나는 운명이 좀 긴가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마는, 나는 노조 활동하면서 태일이 2번 타자가 최종인이라고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오로지 태일이 정신을 해친 사람은 내가 그 누구도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런 정신으로 푹푹 뭉쳐 있었으니까.

그런데 잠깐, 지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중덕이라는 사람이 태일이 주변에, 태일이 재단에 일을 관계하고 있어요. 당시 시장에서 일을 두 달인가 세 달쯤 하다가 이승철이가 민중덕이를 계획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날카롭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노조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노조에 참여시켰어요. 그런데 애는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태일이 정신을 살린 게 아니라 자기 사적인 의도를.

결론적으로는 노조를 통해서 정치에 발을 들인 사람이 많아요. 노조에 발을 딛고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상이 바뀌었는지 개인적으로 난 이런 것을 용납 못 해요. 원래 내 사고방식이 태일이를 팔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민중덕이가 한자리 하려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예민했던 거였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민중덕이가 사사로이 노조를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다 밀어주고 나왔단 말입니다. 민중덕이, 장기표가 어머니한테 장난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재차 그 애들 끌어내고 우리가 집행부 밀고 들어가서 다시 했는데. 민중덕이의 사고방식은 청계천에서는 잘못되어 있다, 여기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명성이나 명예를 위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친구들은 오직 태일이 정신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잘나가야겠다거나 어디 나서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자리도 이수호 위원장님이 대담하자니까 할 수 없이 나왔지, 이렇게 대담하는 데에 가질 않습니다. 우리를 빛내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

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태일이 재단을 계속 지키면서 잘하고 있는가, 못할 때는 쳐들어가서 시위하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날까지 이려고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예.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건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떻게든 나름대로 전태일의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그 뒤로 친구들이 같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라도.

최종인 태일이 모습을 잠깐 이야기할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과거에 바보회 멤버에는 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일이가 제 공장에 자주 놀러옵니다. 보면 행동이 빠르고 뭔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김영문 키가 작아서 걸음이 빠르지 않았을까. (웃음) 그리고 아마 마음이 바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수호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늘 그런 마음으로.

김영문 걸음걸이 자체가 그냥 걷는 게 아니야. 켄걸음으로 빨빨 빨 걷는 거예요.

이수호 어떻게든 뒤에 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본인이 이런 일을 해보니까 조금 이렇더라,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이승철 아까 최종인이 이야기했듯이, 사용주들이 우리 활동하는 사람들을 깡패라고 그랬거든요.

이수호 노동자들을?

이승철 내가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려 했을 때, 장기표 씨가 나한테 “장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든지 잘해야 사용주들이 일하기 싫어서 노동운동했다는 소리를 안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잘해야겠다 했는데.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워낙 그 사람들 상대로 만나서 토론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하니.

81년도에 징역을 살고 나와서 2년 동안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이든 데모든 전두환을 아주 괴롭히는 일을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서 별수 없이 장사를 시작했죠. 저는 제일 먼저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유태인의 상술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들 장사하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78과 22가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면 22퍼센트의 사람은 78퍼센트 자본을 가지고 있고, 78퍼센트의 사람은 22퍼센트밖에 안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장사를 할 때부터 적어도 부자들을 상대하는 고급 장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 물론 최종인이가 사용하던 YKK 같은 고급 지퍼를 선택했던 게 제가 장사를 잘할 수 있었고, 또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이수호 어떻게든 노동자로 일하고,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다시 개인 사업을 하면서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살짝 지나가기도 했는데 모범업체에 대해서만 잠깐 더 얘기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모범업체 구상

이수호 전태일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담긴 자기 사상을 현실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는 정당한 세금을 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도 노동자의 교육, 의료, 복지 등을 책임지는 모범업체에 대한 구상도 보여주고 있죠. 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많이 나눴다고 그랬던 것처럼 직접 전태일에게 이 구상을 들은 분도 계시고, 나중에 평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든 모범업체에 대한 전태일의 구상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는 친구도 있었죠. 아까 임현재 형은 너무 이상적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현재 그건 정도의 차이죠. 전태일의 그 계획서 자체는 너무 이상적이었다고 보고요.

이수호 그래서 직접 봉제노동 현장에 종사하는 당사자이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본 또 다른 당사자로서 모범업체에 대한 전태일의 구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전에 두 분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어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최종인 모범업체는 전태일 구상이죠.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 일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자본이 많으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오직 몸으로 일을 하는 처지라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그것을 불려가지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이 관행이고, 현장에서 일하는 재단사 이런 사람들이 같은 업종의 사용주가 된다 말입니다. 잘되는 사람들이 사용

주가 되고 못되는 사람들은 항상 노동자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노조 그만두고 워낙 자본 없이 사장 행세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번 돈으로 내일 원자재를 사야 해요. 그런 현실에서 내일 원자재 살 돈이 없으니까,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만 지키고. 그 외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앞서간다는 것은 상상만 했지 실제 행동으로는 절대 못 한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원자재 사고, 또 조금씩 벌고. 이렇게 산출해가며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거든요. 노력을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으니까.

이수호 그 당시 현실은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전태일은 자본금 3천만 원, 그리고 계획서에는 종업원 159명인가? 공장은 세 개동의 규모로 만들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당시 현실로 봐선 이상적이었다. 보면 결국 실현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성공할 것 같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임현재 아까 제가 한 표현 중에 단적으로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업주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죠. 노동자들이 번 만큼만 나도 벌겠다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곤란한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는데.

저도 공장을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그때 생각에는 늘 조급함이 있긴 있더라고요. 만약 비수기가 돼서 일감이 없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급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해 있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자본을 축적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압박하죠. 그래서 그 욕심을 충족하려다 보면 분배를 정확하게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현실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나마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장했던 원칙이 있으니 자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보다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망한 건 아니고 성공했으니까. 전태일의 구상처럼 그보다 조금 더 따라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이수호 승철 씨는 일기장과, 특히 그때 중앙일보죠? 중앙일보에는 기증하겠다고 보낸 편지가 되돌아온 것. 그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그때 받았던 느낌과 전태일이 꿈꿨던 모범업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철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었고요. 모범업체를 하다가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 그걸 봤는데. 그때 보나 지금 보나 전태일은 참 순진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동 작업으로 공동 분배하는 일은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자본주의는 그저 경쟁사회지. 공산주의가 공동 작업, 공동 분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생각은 순진한 거죠. 혹시 전태일은 순진해서 죽지 않았을까.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겠다. 물론 그의 죽음으로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고 민주화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했었지만.

순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장사는 하는데 공장은 운영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범업체를 한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지속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호 전태일은 바보회 시절부터 모범업체 이야기를 수시로 주

변에 얘기를 했잖아요. 바보회 회의할 때도 이야기했고. 가장 먼저 그런 이야기를 들곤 했는데 그때 받은 느낌이나 그 뒤로 쪽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김영문 저 같은 경우는 결국 그랬던 것 같아요. 전태일의 생각은 바보회를 하면서 모임이나 조직을 꾸려나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범업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구상이었다고 봐요. 저한테 가끔 자금을 구하는 문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평화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주 찾아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는 안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알았지.

사실 어려운 생각이라고 봐요.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구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나 전태일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구상으로라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되겠다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모범업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에 공장을 해봤지만 사실은 근로시간을 지켜서는 썬이 안 맞아요. 처음에 너무 어려웠고 힘이 들어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래서 전태일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하여튼 ‘분배를 하겠다, 내가 이익을 찾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사용자들에게도 ‘너희들 봐라, 우리처럼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욕심을 내서 근로자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지 않냐, 인간 대접을 안 해주고 있지 않냐’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의 다른 글을 보면, 이건 정말 너무 실현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정말 모범적으로 해서 보여주고, 실제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혹시 모범업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안 계신가요?

이승철 순진한 생각이죠. 영문이가 이야기했듯이 그때도 3천만 원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웃음)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가 생각하는 하나의 공상, 순진한 생각을 한번 적은 거겠지요. (웃음)

이수호 예.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차 한잔 하신 뒤에 두 꼭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럼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간 휴식)

4. 전태일의 헌신과 그 영향

이수호 그래도 말씀을 하실 때 힘드실 텐데 아주 열정적으로, 참 자연스럽게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로 봐도 버티기 힘들실 건데. 한 시간 반,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고맙고요.

평전 4부 「전태일의 사상」 마지막 부분은 전태일이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나약한 생명체들을 위해 ‘나를 버리고 가마. 나를 죽이고 가마’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분신항거에 대한 일종의 각오, 예고. 이렇게도 느껴지죠. 이는 다음 시간

에 이야기를 나눌 커다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청년 시절 전태일과의 인연을 통해 노동운동에 몸을 담고 많은 고초를 겪으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신의 의미와 그 범위, 그리고 헌신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전태일의 연민에서 오는, 그러면서 결국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태일의 헌신이 선생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범한 어머니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사회운동가가 된 우리 이소선 어머니. 결정적으로 태일이의 헌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전태일은 모범사업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이후 자신의 삶 자체를 헌신하였는데.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헌신의 정도와 본인은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한 그런 헌신을 했을 때 느끼는 보람이나 아쉬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으면 합니다. 전태일의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내 생각. 내 삶을 통한 나의 헌신적 삶, 이런 예들. 말문을 여시죠.

최종인 전태일의 헌신. 일기에도 쪽 나옴디다만 원래 태일이는 계획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기 몸을 던져야 이 사회를 고발한다는.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냥 좋은 목적에서 참여한 거지, 사실 우리 다 순진한 사람들이거든. 오직



청옥고등공민학교 동창들과 남산을 오르던 날(왼쪽 전태일), 1969년 초, 전태일재단.

시골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서울로 올라와 현장에서 일했던 그거밖에 모르고. 일과 먹고사는 것밖에 모르는 친구들이예요.

전태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각별한 신앙 정신으로 평화시장이라는 자기 작업장의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 이 환경을 개선하려면 자기를 희생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지 않았을까. 지난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조금 서글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태일이 그러고 간 뒤에, 그 사람은 정의롭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나는 항상 주장합니다. 태일이가 굉장히 친구들한테도 정겹게 얘기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와 닿아요. 옳은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놀던 대로 놀아왔고, 월급 받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돈도 쓰고, 같이 어울려 놀러 다니고 그런 스타일로 살았는데. 태일이 보면서 참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있나? 참으로 정의롭다. 옳은 이야기만 하는 걸 보면 정의로운 사

람인가 보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을 받들다 보니까 우리가 그 행동에 서서히 빠져들어요.

옳은 일이라 하니까 같이 앞장서야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 전태일하고 친목회 만들어진 다음부터 행동을 같이했죠. 행동을 같이하면서 따라다니고 그런 일이 재미있었고. 또 생전 보지도 못한 기자실을 가니까 기자들이 인사를 하고 “전태일이 왔냐”면서 반겨주고. 노동청에 가서도 곳곳하게 이야기하고.

일개 노동자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사회 지식인들, 그때 당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지식인이었거든요. 지식인들이 태일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따라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을 하죠. 나도 태일이마냥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태일이가 죽고 난 뒤에도 20대였던 젊은 우리 친구들이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 나는 내 와이프를 공장에서 일하며 만났다가 노조 활동하면서 헤어졌거든요. 노조 하면서 일체 보지 않았고. 주변에 여성이 80퍼센트 정도로 많았어요. 우리와 가입원서 받으러 다니는 미싱사들이 다 여성이고 미인들이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의 여자들이 따르는데 왜 감정이 안 생기겠어요. 감정이 있어도 스스로 억제를 하고. 전태일 정신에 위배되니까 절대 마음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사용주들에게 젊은 깡패들 집단이라고 인식이 안 좋으니 우리 모습을 바꾸자 해서, 공무원들이 여름에 입고 다니는 하얀 남방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하면서 그 하얀 남방을 입고 출근하고, 노사 교섭을 하기도 하고, 조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모습을 몸으로 실천해야 사람들이 따를 거다, 전태일 정신을 따를 거다. 전태일 정신을 조금이라도 해롭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날 지금까지도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주변을 보면 젊었을 때 만나서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한 사람들 말이에요. 왜 이혼을 하나? 조금 불편하더라도 살지. 부부기간에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라고 의견이 맞겠냐 이거야. 우리는 봉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족보에도 없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 재혼하면 그 결혼식에 내가 못 가게 해요. 거기 가지 마라 왜 가냐, 그래서 재혼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안 가요. 부조도 안 해요.

이수호 아니, 이혼이 뭐 나쁜 거라고. (웃음)

최종인 아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전태일 정신에 해를 끼치는 일은, 욕을 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 이겁니다.

이수호 예. 전태일 보면 참 말도 조리 정연하게 잘하고, 태도나 몸가짐도 단정하고. 거기다 자기를 헌신하는 구체적인 실천 모습. 이런 걸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도 영문 형은 바보회 때부터 자주 만나고 했는데 전태일의 여러 모습, 특히 전태일의 헌신적인 모습. 그것이 영문 형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김영문 사실 저도 좀 조용한 편이에요. 태일도 조용하지만 말은 참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듣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일기에서 읽었지만 태일이 70년도에 삼각산에 있다 내려와서 고뇌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뭉쳐야 한다, 우리가 다시 무언가를 해보자라

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데모도 하고. 그때 69년도에 대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아마 청계천까지 온 걸로 알거든요. 서울대생들이 종로에서 시위하다가 청계천 평화시장 쪽으로 막 도망 오는 모습을 보면서 데모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어쨌든 삼동회를 만들면서 보니 상당히 본격적인 생각을 하고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자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말하는 내용이나 각오, 생각 자체가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을 때 정말 나는 그때만큼 기분이, 전태일에게서 그때 그 모습만큼 환한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그게 불과 며칠을 못 갔죠. 그 사람들 말로는 며칠만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려라, 어느 정도 개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으니깐. 태일이 그걸 보며 10월로 들어서면서 데모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과정을 보면 바보회가 흩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든지, 삼각산에서 여러 가지로 고뇌를 하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라는 일기처럼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의 세계로 자기가 다시 가야 된다는 딱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수호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결단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헌신이 구체적으로 선생님의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김영문 저는 전태일이 했던 이야기, 그런 쪽으로 정신이 확실하게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삶에 보탬이 되고. 돈 버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알았으니깐. 또 전태일의 정신이 그런 거였으니깐. 그것도 지켜가면서. 다만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도 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수호 승철 씨가 그 뒤에 활동이 가장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화려하셨는데.

이승철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특히 우리 셋이 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셋이서 같이 해야 될 운명이었고. 전태일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고. 삼동회도 운명이었을 것이고. 전태일이 죽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회장을 시켜서 비분강개하며 죽었나 했는데, 일기를 보고서 정말 의로운 사람이어서 죽었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후 이야기 중에, 전태일보다는 그 어머니가 더 훌륭하다는 얘기를 제가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에서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엄마들이 돈 많이 준다 하면 다 장례 치르고 말지. “나 돈 필요 없다, 우리 아들 뜻을 이어달라” 그렇게 하는 엄마가 있었을까. 그런 모습도 참 특별했던 어머니였고.

그다음에 종인이가 이야기했듯이 나더러 네가 와야 되겠다고 했어. 아주 큰 공장에 있던 공장장이 신평화에다가 다시 공장을 차렸는데, 한 40명쯤 될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서 가입원서 받아오고 조합비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미싱사들 있는 곳에 가서도 가입원서 받아오고. 종인이가 너, 나와야 되겠다고 했을 때 현재도 있고 해서 나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지식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문교부 혜택을 거의 못 받다시피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는 내 인생에 전혀 없었을 거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서울 법대생이라든지 유명한 목사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전태일 때문이고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이 옳기도 했지만 그때는 제 가슴에 스펀지가 있었

는지 그들의 이야기가 쪽쪽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장 형(장기표)이 자기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장길산』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많이 전해줬죠. 베트남 전쟁이 공산주의 때문이 아니고 프랑스와 미국 때문이라는 것도. 그리고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조선총독부』 같은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의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중간 즈음에 운동의 스타일이 변하다 보니까 후배들로부터 불신임도 받고. 그래도 어찌 됐든 그 10년 동안 가보지 않은 구치소에 갇혀서 6개월간 살아도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후 제 삶은 장사를 하면서도 늘 빛진 마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40주년 무렵에 우리 친구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해서 추도식에 한 번 안 갔어요. 그게 전태일을 벗어나기 위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보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인터뷰할 때도 나는 전태일의 친구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외 2000년도, 우연히 주례를 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새삼 느꼈고. 1984년 다시 장사를 하고 있을 무렵인데 어떤 놈이 돈을 안 줬어.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요. 그래서 돈 안 준다고 쫓아갔더니 이러는 거야. “너, 전태일 친구, 너 이 새끼 내가 뭐” 어찌고. 그때 내가 기절을 했어. 그러면서 느꼈던 게 내가 어디 다니면서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태일 친구라는 새끼가 저런다는 걸 다 알겠구나. 그때부터 내가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면 전태일 친구가 올바르게 잘 살아야 전태일의 이미지에 흠을 내지 않는다. 사실 그래서 나는 오늘 전태일 친구들이 이런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다는 내용들이 보도됨으로써 전태일은 정말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또 그 친구들은 전태일의 뜻을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태일 친구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전태일 친구로 살았던 지난 삶이 엄청 힘들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수호 예. 전태일의 헌신적 삶.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배워서 따라 사는 모습인데. 여기 네 친구분이 모두 그렇습니다만 후배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목돈을 투자하시고 그러는데.

특히 몇 년 전에 캄보디아입니까? 캄보디아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 학교가 없어서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이런 삶이 다 그런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가요? (웃음)

이승철 조금 빛을 갠다 생각하고. 하여튼 40주기 이후에 전태일 추도식에서 친구들이 추도사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더라도 그가 말한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를 지금도 친구 누군가는 현장에서 운동을 하든지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편히 살고 있다는 것에 항상 죄책감이 있었고요.

여하튼 1970년 노조를 결성해서 81년 구치소에 갔다 올 때까지의 내 인생은 황금 시절이었고, 저는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도 노동운동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래서 전태일과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은 내가 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죠. ‘그대가, 그대들이 떠나서 그 조그마한 권력이나 자본에 취해서 당신들이 존경해 마지않는 민중들에게 총을 들이밀지는 말아라.’ 그런 걸 떠나서 생활인일지라도 그들을 비판해선 안 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70년 당시 전태일을 살리겠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딱 체 게바라가 말했던 모습으로 예견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참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수호 우리 임현재 형님은 어떠신지요? 그 당시에 전태일의 죽음 그 자체가 자기희생을 통한 어마어마한 헌신이었고. 알게 모르게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당시 전태일이 풀빵을 사주면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행동이 보통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임현재 그렇죠. 그때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몰랐었고. 활동하는 데가 달랐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좀 선행했다고 해서 그걸 자랑질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몰랐었죠. 다만 삼동회의 목적이 우리들이 뭉치면 최소한 월급을 떼어먹는 그런 행태는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꽂혀서 삼동회 활동을 했고. 삼동회를 하다가 그 리더가 비명에 갔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고.

그래서 당시에는 노조에 참여한다는 게 엄청난 희생이었던 것은 맞죠. 왜냐면 우선 월급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언제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약도 없는 거고. 너무 어려운 길을, 가시밭길을 우리는 자처해서 가는 거였으니까. 거기에 나 혼자 가면 외로워서 못 갔을 그 길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그때의 동지적 애정들이 이제 나이가 칠순이 넘어서 팔순을 보는 지금까지도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일 수도 있고. 또한 큰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고 보니 물론 열심히 했던 그 보상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전태일 친구로서 우리는 영원히,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창 피 끓는 청년들이었죠. 종인이는 애인이 있어서 가끔 빠지기는 했지만 승철이랑 나는 애인처럼 (웃음) 등산도 다니고, 온양저수지도 가고. (웃음)

이승철 덕적도 해수욕장에도. 내가 있던 공장장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임현재 그렇게 지냈어요. 막걸리 한잔 먹으며 노래도 부르고. 우리는 전태일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기준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전태일에 빠져서 살았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잘 살았다.

칠순이 넘어가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 즉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 또는 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이라면 괜찮은 삶이 아닐까 싶어요. 언제 우리 막냇동생이 “오빠, 이거 생일선물이야” 하면서 편지를 주더라고요. 편지를 보면서, 아! 눈물을 흘렸어요. ‘존경한다. 사랑한다.’ 평소에 무뚝뚝해 보이던 녀석이 그런 말을 써냈을 때. 내 꿈이 마지막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게 참 잘 살았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그 하나가 인정받은 느낌이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요즘 저는 시골에서 두 번째 직업인 농부로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노동을 많이 하는 농부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전태일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밝고 넓게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알고 살았을 수 없을 거라는, 기초 교육 자체도 못 받고 그랬었는데 참 잘 살아내고 있다. 요즘에는 전 정말 흐뭇합니다. 부자 친구들이 (웃음) 밥도 잘 사주고 고스톱 치면 잃어주기도 하고. (웃음)

이수호 올해가 50주기. 인연이 벌써 그렇게 됐는데. 결혼도 50주기가 되면 금혼식이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일인데. 애정과 사랑이 변치 않고 50년이나 계속 지속되어왔다는 것도 대단하고. 아까 승철 씨는 40주기 때 여러 기억들이 새롭게 생각났다고 하고.

저하고 구체적으로 인연이 맺어진 건 제가 전태일재단 맡으면서고. 한

5~6년 됐는데 글을 읽어보면서도 참 이 친구들, 형들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느낌도 많이 받고.

최종인 친구들이 가장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인데 개성이 강하죠. 개성이 강하다는 것은 불의를 못 봐요. 이승철이 같은 경우 진짜 불의를 못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원만해요, 원만한데.

이수호 자기가 자기를 보고 원만하다는데. (웃음)

최종인 예, 원만합니다. 제가.

이수호 인정합니까?

이승철 그렇게까지 인정 안 해요. (웃음)

김영문 통합을 잘하지, 통합을.

최종인 결정적일 때는 들이받아요. 원칙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간다면 저 죽든 나 죽든 둘 중에 하나 살아야 돼. 없는 자가 있는 자한테 대들 때 “나 죽여라” 하면 절대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진짜 친엄마마냥 모시고 살았어요. 살아 계실 때까지 변함없이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친엄마다, 친아들이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머니를 가깝게 모시고 보낸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자부합니다.

이수호 다 인정하죠? (웃음)

김영문 네. 인정합니다. (웃음)

최종인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추도식 때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란 노래가 있어요. 나는 추도식에서 그 노래 부를 때 제일 슬퍼요. 언젠가는 태일이를 만나겠지만 죽어서 다시 만난다면 내가 꼭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종교를 안 믿지만 추도식 때 노상 그 노래를 하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한 3주기까지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죽어서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대요. 어머니가 그 노래를 꼭 슬프게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가 태일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요단강 건널 때까지 부끄럼 없이 살다 만나겠다는 그런 만남의 이야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그래요.

이승철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는 사람이 죽거나 추도식 때 의례 부르는 종교적인 노래야. (웃음)

최종인 그런데 난 종교인지 모르고 (웃음), 내가 요단강 건너서 만나는 걸로만 생각했지. (웃음)

임현재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종교가 가장 깊은 친구야. (웃음)

이수호 믿잖아요. (웃음)

이승철 그리고 죽으면 가서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천당과 지옥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웃음)

최종인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죽으면 만나지 않겠나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 그동안.

임현재 꼭 만날 거야. 걱정 마. (웃음)

김영문 그런데 아까 종인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본 건 맞아요. 저는 나중에 참여했지만 이 친구들은 원래 셋이 더 가까운 친구들이었으니까. 어떤 모임도 그렇거든요.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있어야만 그 모임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노조가 어렵거나 항시 어려운 시기에 종인이가 나서서 꼭 이야기를 해요. 두 친구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시 동의를 했어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더 가까워졌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친구라고 봐요. 아까 그 이야기가 거의 다 맞다, (웃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였습니다. (웃음)

이수호 스스로 2번 타자? (웃음)

김영문 아니, 진짜 그랬어요. (웃음)

이수호 그 두 번째의 기회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1주기 추도식, 1971년, 전태일재단.

최종인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 있잖아요. (웃음) 대단한 거죠. 그건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고.

이수호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게?

최종인 어휴. 너무너무 행복하죠. 난 진짜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태일이를 통해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갚지 못한 것도 많고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니네 아버지는 못 배웠지만 나는 청계천에서 태일이라는 사람을 통해 얻은 게 많단다, 너희들도 재단에 후원금 내라, 뭐 해라. 느그 아버지 죽고 나서는 니들이 참여해라 등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하더라고요. (웃음) 태일이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흡족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수호 다들 너무 그러시니까 부러운 느낌도 들고. 정말 젊을 때 그의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의 헌신적인 삶이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최종인 여기 우리 넷만 모여 있지만. 당시 친구들이.

이승철 또 몇 명 있었어요.

최종인 우리 멤버가 여덟 명 정도 돼요. 노조에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네댓 명. 지금 70대 넘어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여기 네 명. 그동안 죽은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이 네 명은 개성이 있어요. 어느 단체나 어느 노조에 가도 문제가 생기면 셋이서 머리를 딱 맞춥니다. 임금은 어떻게 하고 저 사용주는 어떻게 조져야 되고, (웃음)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냐, 정부에는 어떻게 항의를 해야 하나. 셋이 의논해서 원칙이 결정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만큼 우리가 빈틈이 없었어요.

임현재 이수호 이사장께서 전태일재단에 오시게 된 것도 이놈들의 음모에 의해서죠. (웃음)

이승철 그러니까 우리가 전태일 친구로 살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수호 이사장님을 만나 뵈 수 있었고. 5~6년 동안은 친구 비슷하게 만나서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응당 행복이죠. (웃음)

이수호 (웃음) 저는 사실 당시 전태일재단에 올 형편이 안 돼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사지만 그때 대표로 임현재 이사님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막무가내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때 재단에

오면서 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 중에 첫째가 그럼 나도 전태일 친구 끼워 줄 수 있느냐. (웃음)

최종인 (웃음) 우리들은 너무 영광이고요.

이수호 기억나세요? (웃음)

임현재 네, 그럼요. (웃음)

최종인 이수호 위원장이 오셔서 전태일재단이 성황을 이루고, 이렇게 전태일기념관도 생겨서 우리 친구들은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 행복합니다.

임현재 저희들이 그때 추대할 때만 해도 정치 쪽에 뜻을 두고 계셔서 오시겠나 하는 걱정들을 했죠. 그러더라도 일단 대표를 파견해서 말씀은 드려 보자고 해서 제가 찾아뵈었는데. 그때는 역대 이사장님들의 업무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비상근으로 마담 역할 정도, 그렇게 해오셨는데요. 저희는 이수호 이사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도 전달했었죠. 그런데 오셔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몇천 배 정도 (웃음) 더 성과를 내시고.

이수호 고맙습니다. (웃음)

이승철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보회 친구들하고 삼동회 친구들이 달랐던 건, 바보회 친구들은 아까 영문이가 얘기했듯이 다

순진하고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개성 있고 투쟁적인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야기하자면 바보회 활동했던 사람 중에 ‘장땡대’라는 사람이 있었어. 가운데 자는 말을 않고 ‘장땡대.’ (웃음) 그 사람이 친구였지. 내가 부관상가를 담당하는데 거기가 일요일마다 일을 해. 그래서 내가 “야, 니가 일요일에도 일을 하면 되냐” 계속 뭐라고 하니 자기는 “야, 내가 태일이랑 바보회 할 때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을 벌면 그걸로도 와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도 니 그리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그랬지.

그래서 71년도 여름인가 그때 우리한테 타자기가 필요했어요. 타자기가 6~7만 원은 했을 거야.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그 애를 찾아갔어. 우리가 타자기를 사려고 하는데 한 5천 원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 돈이 없다는 거야. (웃음) 내가 그걸 보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여튼 다른 사람들에게 모금을 해서 타자기를 샀어. 그런데 밤에 가 보면 늘 늦게까지 일해서 걸려, 일요일에도 걸려.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은 어느 모임이든지 추진하는 멤버들이 약간 저돌적이어야 해. 그리고 좀 투쟁적이어야 사람들을 끌고 가지. 순한 사람들만 모여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재 그걸 좋게 표현해서 추진력. (웃음)

김영문 그때 바보회와 삼동회의 차이는 지금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바보회는 나이가 어렸을 때야. 68년도부터 만나서 활동한 기간 69년도. 그때는 나이도 어렸고 초창기였고. 그 후에 삼동회를 만들 때는 이미 나이가 20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중심이 뚜렷했다고 봐요.

이 친구들이 개성이 강한 건 맞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바보회 때는 사실 전태일이만 계속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다른 회원들은 그건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아까 장땡땡인지 머시기인지 (웃음) 군대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이미 돈을 벌었더라고요. 내가 알아.

이수호 그런데 왜 돈도 안 내놓고. (웃음)

김영문 나는 사실 군대를 가서 몰랐는데 지금 그 이야기처럼 장땡땡이의 모습이 문제를 만든 거야. 결국 그 친구 때문에 바보회도 욕을 먹었어. (웃음) 요즘도 교회 나가더라고. 어떻게 교회는 나가는지 모르겠어. (웃음)

이승철 하여튼 저는 우리 셋이 등산 다닌 것이 너무 좋아서 등산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봐 참여를 했고. 등산이 우리가 모임을 조직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72년도부터 등산대회를.

임현재 71년도지.

이승철 71년도인가. 그때부터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의 취미였었다는 거.

이수호 예. 전태일의 자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과 그 삶을 통해서 여기 계신 형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다른 곳에서 나름대로 살았지만. 뒤에 평전을 통해서 상황을 알게 되고 전태일로 인해 저도 달라졌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태일이가 보여준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아닐까. 지금까지

지 50년이 되도록 씩씩하게 살고 계신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승철 70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웃음)

김영문 제가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참 인연이구나 싶다 생각을 해요. 대구에 가서 어느 분이랑 대구 출신의 조영래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두 분의 집이 얼마 안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뭔가 연이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들은 이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수호 조영래 변호사가 한 살이 많죠. 둘 다 대구 태생으로 조영래 변호사는 47년, 전태일은 48년에 태어났죠. 저는 그때 사실 태어나기는 영덕에서 났어요. 3년쯤 뒤에 6·25가 일어나고 피난을 대구로 온 거죠. 진짜 인연이고 우연의 일치인데 조영래 변호사, 전태일, 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 대구라는. (웃음)

김영문 오셔서 큰일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리도 같이하면서.

5. 지식인들의 오만과 사회문제

이수호 그건 다른 기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평전의 저자 조영래는 전태일의 사상을 이른바 ‘밑바닥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스스로 이러

한 삶을 조롱하고 냉소하는 노예의식을 버리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거부와 함께 적극적인 실천과 연대를 통해서 사회개혁과 인간해방을 이루자'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태일의 삶과 결합되어서 사회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죠. 또한 사회의 모순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념과 정치 또는 지역과 난민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되면서 연대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전태일 정신, 전태일 사상이 오늘에 왜 더 필요한지와 함께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을 서로 말씀 나누었으면 합니다.

평전 다 읽으셨을 테니까. 전태일 사상으로 정리한 게 그렇죠. 밑바닥 인생,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저항.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전태일의 삶이죠.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평전의 저자가 전태일 사상을 정리한 입장이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생각이 약간 다르거나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혹시 계신지.

또한 전태일 사상이 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연대 이런 것들이죠. 그동안 쪽 함께 해왔죠. 그리고 전태일 정신에 비추어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적 문제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승철 씨? 전태일 사상을.

이승철 지금 말씀하시듯이 변호사가 전태일 사상을 '밑바닥 인생'이라고 썼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그분도 이른바 지식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전태일

평전』을 너무 잘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기의 양심을 깨우치는 계기는 되었는데.

이 사회는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 지식이라는 게 꼭 대학교를 나와서 내가 지식인이라고 칭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를 좋은 데 나왔을수록 그 사람들은 학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하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난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이수호 그렇죠.

이승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든지 가면 학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돼요. 2005년도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보면 고졸 이상이야. 그거를 떼와야 돼.

이수호 졸업증명서?

이승철 네, 졸업증명서. 그런데 교직원 추천이 있으면 돼요. 그때 임종률 교수가 법학과에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가서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했더니 "어휴 이승철 씨를 안 받아주면 되나" 그러고 바로 써줘서 갔어.

호텔에 총장이랑 교수들이 60명쯤 있었는데 축사가 끝나자 대학원 원장이 나한테 답사를 하라고 했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답사를 했더니 와, 이걸 뭐 제 이야기지만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학생회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을 하게 됐죠.

이수호 학생회장이 됐어요?

이승철 회장이 됐는데, 학생회장은 의례적으로 2천만 원의 별도 회비를 내야 돼. 수업료 6백만 원에도 회비가 들어 있어요. 6개월 동안의 회비. 또 그다음 회비.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내가 거절했어. 안 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안 하면 75기 체면이 안 선다고 찾아오고 난리를 떨었지. 그럼 1천만 원만 내겠다고 해서 1천만 원을 내고 학생회장을 했던 거야.

그때 내가 느꼈던 건, 정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걸 학력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 이후에 전순옥이 때문에 중구, 거기 노인회 회장이 중앙대 법대 나온 분. 그분이 국졸이면 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웃음) 내가 아직도 그걸 그분한테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종인이랑 내가 뭘 좀 한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신문에 나는 것을. 그럼 그 사람들은 학력이 없는 사람도 뭔가를 한다는 걸 계속해서 자꾸 말하고 싶어 해. 그들 생각은 학력이 없는 사람도 하니까, 문교부 혜택을 많이 받은 지식인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지만 당사자인 나는 불편해. 아주 불편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를 그 학력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다. 그래서 밑바닥이라 꼭 찢어야 하는가. (웃음)

이수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래 변호사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더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밑바닥 인생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그 장본인으로서 불편하고.

최종인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어머니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셨어요.

이수호 어머니께서?

최종인 이소선 어머니. 무슨 말이나면, 장기표 선생이 어디 강의할 때나 모임이나 예식장 등에서 “전태일이는 초등학교 4학년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합니다”라고 조영래 변호사마냥 밑바닥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항상 “저 사람 맨날 아들을 그렇게 깎아내리는가” 하고 (웃음)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장기표 선생에게 주례를 서달라고 했어요. 거기는 전태일과 관계된 사람이고 사돈 집안과도 관계가 있고. 장기표 선생님이 주례를 하는데 ‘전태일이 친구 최종인은 어떻게 어떻게 살았고 전태일리와 아주 친한데 전태일이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여자 쪽 입장에서는 ‘왜 우리 신랑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기분 나빠해요. 어머니도 그랬지만.

물론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못 배웠으니까 아무 말 안 하지만. 저도 조금 가슴이 빠근하더라고. 사돈들 앞에서 주례사를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주례사를 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와야 되냐 두고두고 씹는 거예요. 두고두고. 사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듯이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이수호 어떻든 그런 ‘밑바닥 인생’ 그리고 저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인 저는 밑바닥 인생이지만 못 배웠다고 절대 후회한 적 없어요.

이수호 그러니까요.

최종인 그냥 잘난 사람들 안 만나면 되죠. 자기들이 찾아오면 만나서 대화를 하지요.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만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많고 대화할 사람도 많은데 무시하는 사람을 왜 만나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살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끼리 살듯이 못난 사람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멋지게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임현재 잘했어. 다 잘했다고 칭찬하잖아. (웃음)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는 국졸이 아니라고, 지식인인 척하지는 않을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썩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인식 때문에 불편하겠죠.

전에 어떤 대학교수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스스로 ‘천방지축마골피’라는 성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쌍놈이다’라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는 사회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나도 학력 자체를 감추는 것보다 당당하게 밝히는 것도 괜찮겠구나 했지만 그렇다고 썩, 더군다나 사돈 앞에서 밝혀지는 건 (웃음)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겠지요.

이수호 (웃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영래의 눈으로 본 전태일의 사상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임현재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태일이 중학교도 못 간 사람이 아니라 고등학교 정도는 나왔으면 아마 (웃음)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까 질문에 양극화 문제, 아니 지금 사회현상에도 학력 차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지식인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은 무식한 놈이니까 당연히 무식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똑똑하게 행동하면 어쩌면 그게 더 대단한 걸로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양극화 문제.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상에 대한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른 빈부에 대한 양극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심하지 않나. 특히 요즘에는 보수와 진보, 색깔에 따른 양극화, 이 부분은 정말 아주 진저리가 날 정도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 이게 그 동안에는 우파 정권이 정권을 내리 잡으면서 형성되어 등식화돼 있는. 자기들은 당연히 집권을 하고 좌파들을 몰려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없애는 방안으로 나는 좌파가 정말 그 대표의 말처럼 한 20년 정도 집권을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요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점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요.

이수호 영문 씨는 어때요? 조영래의 눈으로 볼 때 전태일이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근로감독관한테 편지를 쓰거나 진정서를 내기도 하고. 또 대통령한테 아주 간곡한 편지를 쓰고. 이런 일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죠. 기자들이 실태조사라도 해봐라 그러니까 실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가고. 그런 실천적으로 행동을 하는 전태일

의 모습, 그걸 사상으로 풀어낸 건데.

김영문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사실 배우고 안 배우고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물론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전태일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못 배운 사람 입장에서 배운 사람들 옆에 가면 약간 주눅이 들기는 해요. 얘기했듯이 상대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꼭 그렇게까지 만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군대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김해공병학교를 갔을 때 1월달에 교육을 받는데 이군, 삼군사관학교 모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 친구가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초등학교 나왔는지 중학교에 들어갔는지, 중퇴했는지 모르니까 “야. 사관학교가 저기 있는데 이거 병 생활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안 갈 거야. 너나 다녀와라.” (웃음) 진짜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배웠어도 전태일의 깊은 생각들과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쓰인 일기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과 심성과 환경 같은 것들이 합쳐지면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수호 최종인 선생님은 태일이하고 삼동회 하시면서 55일간 늘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당시 태일에 대한 인상이나 사상, 생각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이걸 이루어 낼까? 관철시켜 낼까?’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종인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다. 인간이 자기만의 주관을 확실히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사회에 호소를 하는 거고, 호소를 해도 순서를 밟아서 하는 거고. 실태조사 하려면 실태조사 하고.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태일의 목적은 자기를 던지는 거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가 사전에 계획을 전부 알리고 삼동친목회 회원들의 힘을 빌려서 행동 날짜를 잡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또 몸을 던지고.

이 정신이야말로 본인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심성이 아주 고운 사람들만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지, 심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일은 근본적으로 심성도 착하죠. 태일을 따라가려면 정신이 올바르게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 이래서 죽었구나, 이래서 행동을 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정의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노조 활동을 할 때도 우리 노조 간부들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그때 사업장에 조사하러 다니면 돈을 줍니다. 노조 간부들의 철저한 감시하에 봉투 하나라도 받으면 그날로 모가지야. 태일이 정신을 망가트리는 거니까. 혹시나 한 푼도 없더라도 라면을 끓여 먹으면 되지. 하나라도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면 태일이 욱 먹이는 거고, 우리가 집단으로 모략 받는다. 우리는 남다르게 이런 생각과 행동을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지만 휩쓸리지 않고, 철저한 사고방식으로 태일이 정신을 욱되지 않게 오늘까지 이어왔다 생각이 듭니다.

이수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전태일이 분신항거하고 돌아 가신 다음 남은 친구들이 뜻을 이어서 활동을 하는데. 같이 하시던 분이 처음에는 여덟 명이었고.

이승철 모임이, 근무환경이 아니고.

이수호 그 모임이.

김영문 삼동회.

이수호 예, 삼동회. 그리고 다른 일 하시면서 슬금슬금 다른 길로 가시기도 하고. 그래도 정말 전태일 정신과 사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포괄적으로는 다들 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네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웃음) 전태일하고 학력이 비슷하다는 거. (웃음) 그걸 조영래 변호사는 꼬집어낸 거거든요.

최종인 우리가 배우질 못했잖아요. 학력이 비슷하잖아요.

이수호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은 중간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게.

최종인 우리는 노조 할 때도 우리가 법규를 모르지 않습니까. 노동법규를 모른단 말입니다.

이승철 그거는 말이 달라. 우리가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쟁의조정법, 노동3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달달 외웠어. 달달 외워서 그 법조문으로 따지는 사람에겐 법조문으로 이야기하고, 깡패식으로 행동하면 깡패식으로 제압을 하면서 가고 그랬지. 말 잘해야 돼. 우린 노동3법을 달달 외웠다니까.

최종인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시작할 때 우리는 법규를 몰랐다가 이거지.

이승철 그때는 노동조합인지 노동청인지도 몰랐지. (웃음) 정부에서 예산이 나오는지 알았지.

최종인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는 노동법규를 잘 아는 계통에 종사하는 지도위원을 항상 모시고 있었어요. 우리가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배웁니다. 우리 노조도 한국노총에서 파견된 한두 사람 정도,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죠. 전남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지도위원으로 상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노동관계 법규를 잘 아는 그 양반이 지도해 주었죠. 처음 시작할 때 모르는 것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못 했던 일은 없어요. 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배우지 못했어도 자기가 그 위치에서 상대를 부려 먹으면 되지요. 자본 입장에서든 가진 자본으로 배운 사람들을 부려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승철 대단한 사람이요. (웃음)

이수호 예. 전태일의 정신과 사상. 밑바닥 인생과 저항 정신, 또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헌신. 이런 주제로 지금까지 쪽 네 사람 모셔서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임현재 형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여전히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전태일의 마음으로 같이 행동하고 살아오면서 현 세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세상은 좀 어때요?

이승철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인들이 학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정책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되어 그들이 계속 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거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원흥은 미국이고 그 주범이 맥아더죠. 맥아더가 일본의 통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 경찰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독립운동가들 다 잡아다가 반공을 명분으로 빨갱이라고 죽였잖아요. 그런 부분이 청산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가 문제야. 지금 우리 보세요. 순수한 노동자들이 국회의원 되기는 참 드뭅니다. 적어도 노동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는데 노동자들은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엄청난 큰일 하나가 비폭력 촛불집회 아닙니까. 세계에서 놀라잖아요. 그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그렇게 썩 잘 못하는 것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전태일 친구 이승철이를 만나잖아요. 만날 때는 엄청나게 노동에 대해 얘기해. 근데 국회의원이 딱 되면 노동조합들을 아예 안 만나. 자기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 그러는 한 앞으로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 어쩌면 나 죽을 때까지

도 큰 변화가 없으면 저는 세상이 지금처럼 계속 갈 것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수호 거기 이어서.

김영문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좌파와 우파 구분을 옛날 한동안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 국회에서까지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옛날 우리 군대 갔을 때 정훈교육도 받고 해봤지만 요즘은 완전 무슨 좌파 하면 전부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게 참 이야기가 안 되는 느낌인데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수호 요즘 정치에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낮다. (웃음) 우리가 서로 아는 일인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태와 관련해서 전태일의 사상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임현재 전태일이 노동운동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실은 그전에 관료주의, 노동조합, 친자본 노동조합에서 친노동자적 민주노조가 시작이 됐듯이, 이 바람이 계속 확산되고 또 확산시키고 해서 노동운동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궤도에 오르는가 싶은데, 한쪽에서 보면 권력이나 자본과 결탁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비밀비재하고. 그 방향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바로잡혀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전태일 정신을 우선해서 공약으로라도 되새기고 앞에 세우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시무식을 모란공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잘 지켜지고, 계승 발전해서 노동운동이 결과적으로 정치 민주화도 좀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호 이어서 더 한 말씀.

최종인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웃음) 하여튼 진보와 보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둘로 완전히 갈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보수는 오랜 집권 세력의 후예들이죠. 진보는 가난한 노동자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취급을 딱 둘로 가르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가르고, 우리가 느끼기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진보, 어떤 정치 세력과 좌담을 해도 진보.

예로, 사무실에 한 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현재, 이승철, 나, 그렇게 셋이서 모여요. 둘만 모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외부에서 두 사람, 선배와 친구가 하나 모여.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시장의 사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히 진보에 대해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저놈들 때문에 망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말대꾸하다 보면 치고받고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제멋대로 떠들어라 하고 저는 말을 안 하고 묵묵히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나오면 문재인이가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막 쌍소리가 나와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두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놀이는 같이 해도.

이승철 고스톱은 쳐야 하잖아. (웃음)

최종인 왜 고스톱을 이야기하나? (웃음) 고스톱 놀이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상한 얘기할까 봐. 뉴스에 무슨 보도가 나오면 나쁜 놈들이라고 바로 쏘입니다. 그 상황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확실히 나뉘졌구나. 나는 철저한 진보주의자인데 보수주의자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보수들을 보면 박정희 정권부터 집권 세력을 뿌리로 해서 이어져온 그 사람들이 잘살고 후대까지 잘사는, 이 잘사는 사람들이 보수이다 보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둘로 갈라졌구나. 이 사회는 앞으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전태일은 당시로는 참 가장 진보주의자였다. 그래서 전태일과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전태일의 정신과 생각,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은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말씀들 하고 계시네요. 저도 끼워주셨으니 저도 진보주의자 할게요. (웃음)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작가님하고 촬영감독님, 혹시 빠진 이야기나 더 듣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대현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거의 충실하게 해주셔서 크게 궁금한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저는 『전태일평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사실 소설가로서의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모범기업에 대한 구상과 마지막 결단도 어떻게 보면 소설의 초고에 이미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 사상을 글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모두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생님들께서도 자기만의 생각을 소설이나 소설이 아니더라도 영화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이 문화적 소양이 높다는 걸 다 아는데, 소설도 좋아하고 시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어떻게 형들도 그런 건?

임현재 어렸을 때 한 번쯤 소설가 안 되어본 사람, (웃음) 다 돼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소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내가 소설로 써도 되겠다, 뭐 영화를 만들어도 한 편의 영화가 될 거다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전태일처럼 노트에도 썼을 텐데 보관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렇고. (웃음) 일기도 어느 정도는 썼지만 그것도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고. 초등학교 5~6학년 이때쯤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수호 승철 씨는 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승철 저는 1970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민청학련 사건이 터질 때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 일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놨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전태일을 만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하는 나의 일대기를 하나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떨 때 생각하면 사업해서 돈 번 일로도 책 한 권을 쓸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걸 하나 써보고 싶은 게 꿈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70민노회에서 70년 민주노조의 현장과 희망인가로 글 한 편 써달라고 해서 써보니까 쓰면 쓰기는 쓰겠더라고요. 글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은 지금도 있는데. 꿈을 접었다 키웠다, 접었다 키웠다 이려고 있습니다. (웃음)

이수호 그걸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시죠. (웃음)

임현재 작가시니까 지도를 좀 받아서. (웃음)

이수호 우리 젊은 작가님도 충분히 같이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

이승철 요즘에 이렇게 녹취한 것들, 그동안 인터뷰도 많이 했죠. 그런 것들 다 모으면 내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누군가 읽어 보면 쓰는 것은 쉽게 쓸 수도 있고.

이수호 자서전을?

이승철 그래서 정말로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웃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음이 내키면 80세 됐을 때 그때 한번 써볼까 생각을. 쓰게 되면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었다. 그래서 나는 산소를 쓰는 것도 사실 반대했는데, 우리 아버님 산소를 별수 없이 화장한 거를 바닥에 묻어서 자연장 하고 그 옆에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냈어. 그때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 “너희들 내가 죽어서 니들이 온지 간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다만 너희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길 내가 만들어 뒀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찾아와서 술 먹고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한

적은 있어요.

이수호 하여간 자서전이 됐든 소설이 됐든 쓰기로 하셨으니까.
(웃음)

이승철 아직 그건. (웃음)

이수호 계속 다그치는 거고. (웃음)

임현재 나는 농사짓느라고 못 하니까, 자네가. (웃음)

이수호 여기 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니까. 하여간 대표로 쓰시기로 하고. 영문 씨.

김영문 저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쪽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시 같은 거 읽기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전태일을 만나서 같이했던 시간이나 사건들을 정말로 기록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됐든 저는 그래도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 제 삶이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호 우연히 저하고 카톡을 같이 하게 됐는데 정말 어디 좋은 글, 좋은 영상 이런 걸 얼마나 잘 보내주시는지 제가 아주 호강을 하고 있고요. 관심도 많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편집 같은 것도.

김영문 관장님은 꼭 보내주시잖아요. 또 그래서 관계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웃음)

최종인 (웃음) 저는 놀기를 좋아해서.

이수호 당구.

최종인 아니. 당구뿐만 아니라 (웃음) 스포츠든 뭐든지 놀기를 좋아합니다. 영화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별로 고민 없이 고민하지 말자, 있어도 털털 털어버리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무슨 소설을 쓰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고요. 다만 소설을 쓴다 하면 유명한 작가를 한 명 불러다가 ‘야,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죠.

이수호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웃음)

최종인 ‘이렇게 해서 니가 한 번 써봐.’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옛날에 출판사를 했잖아요. 그때 출판사 경험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전태리(전순덕) 남편 임상진이라고. “형님, 자본 얼마만 대주세요”라는 부탁으로 자금을 대고 출판사를 시작했는데 자기 후배 작가를 하나 데리고 와서 기획실장으로 앉히더니 무슨 무슨 실장 붙여서 네댓 명이 운영을 했어. 한 1년 하고서 다 까먹었어요. 몽땅 거덜 나니까 문을 닫자고 그래.

그런데 불교계 작가 한 명이 “형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형님 노후에 나하고 구경 다닙시다” 하는데, 강원도 설악산 절터가 제일 아름답대요. 설악산 모 절에서부터 저 밑에 해인사까지 6개월 동안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형님 일대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는 놈이었어요. 근데 그 애가 백만 부 팔린 작가예요. 유명해졌어요. 그 애가 처음 작가 일을 할 때 “제가 외국에 가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형님, 출판사 망했으니까 거기 기왕 망한 거 더 망하게 좀 대주

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3천만 원 줬어요.

이수호 어휴. 망한 김에 확실하게.

최종인 그거 가지고 책 내라. 그런데 갔다 와서는 중앙일보에서 출간을 했어요.

이수호 기행문 쓴 거?

최종인 기행문 써서 백만 부 팔았어요. 대작가가 됐거든요. 그놈이 그 인연으로 나한테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그때 약속하기를 전국의 절터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작품 구상도 하고, 형님 얘기도 듣고, 자기가 쓰고 싶은 것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도 전태일 신봉자입니다.

이수호 그것도 하시는 걸로 하고.

최종인 안 할 겁니다. (웃음)

임현재 아니, 전태일 출판사가 출판 사업이 활발해져야 되니까. (웃음) 자네들 먼저 써.

이승철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게, 보통 자서전들 보면 다 자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좋아했는데 그분이 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서전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만 쓰는데 그 책은 달랐어. 그중에 기억나는 대

목은,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돼서 개업을 했는데 첫 번째 손님이 교통사고를 내고 온 운전사 부인이야. 지금 구속이 됐는데 합의만 하면 나올 수 있었어. 그런데 사무장이 나서서 비용은 얼마에 해주겠습니다 하고는 계약금을 받아요. 내용 보면 백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사무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빨리 가서 면회를 하고 오시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면회를 갔다 오면 계약 해지가 안 돼. 그래서 면회를 갔다 왔어. 그런데 저녁에 “합의가 됐으니까 변호사를 취소하겠습니다”면서 그 부인이 왔다는 거야. 하지만 사무장이 “면회를 갔다 왔으니까 해약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부인이 돌아가면서 변호사들은 이런 식으로 해먹고 사나며 화내고 갔다는 거야.

그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양심을 두고두고 잡았다는, 그걸 보고 정말 이 양반 양심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에 꽂혔어요. (웃음) 국회의원 할 때.

이수호 그러니까 그런 글을 써놔야 한다니까. (웃음) 예. 좋습니다. 작가님 꼭지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촬영감독님은?

최철녕 예.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들어서요.

이수호 그러면 그래도 오늘 혹시 미진한 부분 말씀하실 분?

최종인 너무 수고하십니다.

임현재 없습니다.

이수호 마칠까요?

김영문 마치겠습니다.

이수호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써준 멘트가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전태일 정신, 전태일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곁에 두고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정신 자산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전태일 정신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는 전태일의 숭고한 희생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평전의 마지막 5부 「1970년 11월 13일」을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촬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젊은 동지들, 작가님, 늘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이숙희 위원장님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